

사회학

2025. 2. 18.

<제 목 차 례>

1. 사회학 개관	1
- 가. 사회학적 상상력	1
- 나. 사회학적 관점: 기능론	2
- 다. A. Comte	3
- 라. H. Spencer	3
- 마. E. Durkheim	4
- 바. T. Parsons 구조기능주의 / 체계이론	6
- 사. R. K. Merton 중범위이론 [2019-A-11]	6
- 아. 사회학적 관점: 갈등론 [2005-18]	7
- 자. K. Marx	7
- 차. Ralf Dahrendorf / Lewis Coser	8
- 카.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 [2002-4] [2010-2차-2] [2025-A-7]	9
- 타. M. Weber	10
- 파. 연극학적 이론 [2021-B-9] (Erving Goffman)	12
- 하. 교환이론 (George C. Homans)	13
- 거. 현상학적 사회학 (Alfred Schutz)	13
- 너. 민속방법론 (Harold Garfinkel)	14
- 더. 위험사회 (Ulrich Beck)	14
2. 개인과 사회	15
- 가. 사회화 [2003-15]	15
- 나. 지위와 역할, 사회집단	17
- 다. 사회적 상호작용	23
- 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구조	23
- 마. 일탈이론	24
- 바. 사회 계층화 현상	30
- 사. 사회보장제도	33
- 아. 시민사회	35
- 자. 사회운동	37
- 차. 대중문화	38
3. 사회변동과 사회발전	39
- 가. 사회변동론: 기능론과 갈등론	39
- 나. 사회변동론: 진화론과 순환론 [공사 2005-22]	39
- 다. 글로벌 불평등: 근대화론,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40
- 라. 정보사회	41
4. 문화인류학	42
- 가. 문화의 의미와 구성요소	42
- 나. 문화 연구 관점: 총체론, 상대론, 비교론	42
- 다. 문화의 속성 [1993-2] [1994-23] [1995-27] [1995-28] [2001-14] [2004-11] [2010-1차-35]	43
- 라. 문화 이해의 태도: 상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44
- 마. 현지조사와 민족지	48
- 바. 주류문화, 하위문화	48
- 사. 문화의 세계화	49

- 아.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51
- 자. 문화인류학 이론: 진화론 [2004-11], 특수주의, 전파주의	54
- 차. 문화인류학 이론: 심리적 기능주의, 구조적 기능주의, 상징주의, 구조주의	57
- 카. 혼인, 가족, 친족	59
- 타. 종교	62
- 파. 기타	63
5. 사회조사방법론	64
- 가. 사회학의 연구방법: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64
- 나. 자료 수집 방법: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67
- 다. 측정: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기타	74
- 라. 표집방법: 확률표집, 비확률표집	77
- 마. 신뢰도와 타당도	80
- 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81

이 자료의 저작권은 김근홍(admin@folderfile.net)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무단 전재 및 재배포나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1. 사회학 개관

가. 사회학적 상상력

1) C. W. Mills

- 거대한 사회적 힘과 개인의 행위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일상적으로 개인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구조적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가는 것

2) A. Giddens

가) 역사적 상상력

-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2006-21]
-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나) 인류학적 상상력

-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2006-21]

다) 비판적 상상력 [2006-21]

-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상대화하고 의문시하는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 역사적, 인류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사고는 비판적 사고로부터 도출되는 일정한 가치판단을 함축한다. [2006-21]
-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2006-21]

나. 사회학적 관점: 기능론

1) 기본 전제

-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사회체제의 유지, 존속에 기능적이다. [1993-7] [1995-11] [2012-2차-4]
- 사회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진다. [1993-7]
→ 합의 전제
- 사회화를 통해 사회규범이 전수되면서 사회의 지속성이 확보된다.
-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폭넓은 가치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사회 전체의 합의가 반영된 사회규범이 존재한다. [2012-2차-4]

2) 사회문제 [2010-2차-2]

가) 원인

- 사회의 구성요소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때 [2011-1차-33]
- 단위 간 상호작용이 기능적으로 유기적이지 못할 때
- 가치와 규범의 사회적 공유도가 낮을 때
- 사회화에 실패할 때

나) 해결

-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성원들을 문화적으로 통제하고 재사회화 [2011-1차-33]

3) 한계

- 사회의 유기적 통합과 가치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양한 갈등과 대립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모든 현상은 기능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현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세계를 외면한다.

[2011-1차-33]

한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성원들을 많이 재생산한다면 그 사회는 식량, 주택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시달릴 것이다. 반대로 한 사회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성원들을 적게 재생산한다면 그것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거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파동이 온다면 그 사회의 적절한 성장과 사회성원들의 재생산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다. A. Comte

1) 실증주의적 방법

- 사회학을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고, 관찰, 실험, 비교와 같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주장했다.
-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당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배적인 사고 및 문화 체계들의 진전과정이다. [2011-1차-30]
- 사회구조 뿐만 아니라 도덕, 예법, 관습들도 전통적인 과학(자연과학)이 사물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연구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11-1차-30]
- 자연과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정립되면 경험세계 사건들을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1-1차-30]

2) 사회정학, 사회동학

- 사회정학은 사회유기체적 접근으로 사회가 유지하고 기능하는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 사회동학은 인간 정신의 진보를 연구하였다(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

3)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

- 인류의 지적·정신적 성장은 지식의 진보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왔다.
- 사회의 정치적 지배 유형, 사회 단위의 유형, 사회 조직의 유형 등과 지식 발달과의 연계 양상을 분석한다. [2013-1차-29]

가) 3단계 [1992-2]

- 신학적 단계 : 공상적인 정신이 지배, 사제와 군인들이 지배집단이며 가족이 전형적인 사회단위
- 형이상학적 단계 : 추상적인 정신이 지배, 성직자와 법률가들이 중심 세력이며 국가가 중요한 사회적 단위
- 과학적(실증적) 단계 : 실증적 정신이 지배, 공업 경영자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며 인류 전체가 실질적인 사회적 단위

라. H. Spencer

- 다윈의 진화론과 사회유기체설을 사회학에 도입하였다.
- 군사형 사회는 강제적 협동 및 정부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의 의지는 부정되고 중앙집권적 통제에 복종한다.
- 산업형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협동하며, 개인 스스로가 자제하는 분권화된 규제장치가 있다.
- 반드시 단순한 군사형 사회에서 분업화된 산업형 사회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1) 사회명목론 [2003-1]

- 사회에 대한 참다운 이론은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
- 단위들의 속성이 전체 모임의 속성을 결정한다.

-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악이나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잘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2003-1]
- 집단의 성격은 집단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행동 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집단은 단지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모인 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3-1]
- 국가가 특정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가나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2009-1차-28]
- 계층은 이론가가 사회 구성원들을 임의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2009-1차-28]

마. E. Durkheim

1) 사회적 사실 / 사회실재론

- 사회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2012-1차-28] [2023-B-10]
- 법, 관습, 종교생활, 화폐체계와 같은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의 심리로부터 발견될 수 없는 개인 외부의 실재이며, 개인적 사실들로 환원될 수 없는 객관적 실재이다. [2012-1차-28] [2017-A-2] [2023-B-10]
- 사회 현상을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3-1차-29]

- 계급의 이해관계는 그 구성원들이 믿는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다. [2009-1차-28]
- 인간은 물질적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일정한 생산 관계에 참여한다. [2009-1차-28]
- 성스러운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중략)...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강력한 흥분제처럼 작용한다. 일단 개인들이 모이고 나면, 그 모임에 의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을 재빨리 열광시키는 일종의 전류가 생겨난다. 열광 상태에 도달하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외적인 힘에 의해 자신이 지배당하고 이끌리는 것을 느낀다. 그의 동료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울부짖음, 몸짓, 태도 등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격정적인 사회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격정 자체로부터 종교적 관념이 생겨난다. [2009-1차-28]
- 개인의 의식은 사회 현상에서 종속 변수의 위치를 차지한다. [2012-1차-28]

2) 분업론

- 근대적 분업화와 개인화가 사회 결속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을 통해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2013-1차-29]
- 현대 사회에서 노동 분화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수와 그들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동적 밀도 (dynamic density)의 증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대(solidarity) 형성을 분석해야 한다. [2013-1차-29]

가)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 사회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를 결합하는 방식이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하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1999-9] [2012-1차-28] [2023-B-10] → Comte 생각 계승, 강제적 분업이나 아노미적 분업이라는 비정상적인 분업이 나타났다.
- 즉 사회의 규제 정도와 통합 정도가 각각 약해지면서 높은 자살률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2-1차-28]

나) 기계적 연대 [1999-9]

- 동질성을 강조하는 집합주의가 기계적 연대의 기초다. [2012-1차-28] [2023-B-10]
-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며, 공통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었다. [2017-A-2] [2023-B-10]

다) 유기적 연대 [1999-9] [2017-A-2]

- 산업화와 도시의 확장으로 분업의 증가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사회 통합원리가 등장하였다. [2017-A-2]
- 유기적 연대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17-A-2] [2023-B-10] → 상호의존성 인식하여 유기적 연대 형성됨

라) 해결: 직업집단

- 아노미와 비정상적 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통제하고 묶어줄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3-1차-29] → 신념과 감정 측면
-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결속감을 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매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직능 단체와 같은 직업 집단이 필요하다. [2013-1차-29]

마) 해결: 도덕적 개인주의

- 사회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그는 유기적 연대에 적합한 **집합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2012-1차-28] → 도덕적 연결관계 측면
-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경우 직업 집단만으로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대안적 규범으로 도덕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2013-1차-29]
- 도덕적 개인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요시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강조하는 대안적 사회규범

3) 자살론

- 사회 통합도(공동체 내적 통합과 결속력)에 따라 : **약한 이기적 자살** [2016-A-3], 강한 이타적 자살
- 사회적 규제(공동체 속 개인들의 고립 정도)에 따라 : **사회 규범이 혼란한 아노미적 자살**, 사회 규제가 과도한 숙명적 자살

[2016-A-3]

나의 관심은 왜 특정 개인이 자살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혹은 낮은) 자살률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만약 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 또는 한 시대와 다른 시대 간 자살률의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는 사회적으로 특히 사회적 추세의 변화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집계된 특정 시기 자살의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본 결과, 가톨릭 신자보다는 개신교 신자 중에,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적 자살의 자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위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집단 간 자살률 차이는 공동체의 내적 통합 정도와 결속력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속 개인들의 고립 정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한 집합의식과 여기에서 나오는 방어적인 사회적 조류는 사람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 반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집합의식이 약할 때 개인이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는 감정은 커질 것이며 이는 자기 파괴의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 이기적 자살은 가장 사적인 행위에서조차도 사회적 사실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바. T. Parsons 구조기능주의 / 체계이론

- 개인행위들이 모여서 어떻게 균형 있는 사회질서를 형성(동적 균형 상태)하게 되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1) 행위체계

-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성체계로 분류
-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상호 작용하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가치 기준, 즉 합의의 기준이 바로 **사회체계**의 기초가 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기준은 **제도화**되고 나아가 사회구조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2020-A-11]
- 부분적인 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구성 부분들이 문화체계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내면화하며 부여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가) 체계의 기능적 요건(AGIL)

- 사회가 존속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2020-A-11]
- 적응 기능: 경제제도와 같이,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기능
- 목표달성 기능: 정치제도와 같이, 자원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
- **통합 기능** [2020-A-11]: **법적 제도**, 공동체 등과 같이, 사회 내의 **갈등 요소들을 통제**하며 일탈을 규제하는 기능 [2020-A-11]
- **잠재적 유형유지와 긴장관리 기능**: 교육, 문화, 종교와 같이, 사회체계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기능

나) 의의와 비판 [2020-A-11]

- 개인의 행위가 사회체계에 영향을 주고 사회의 각 부분이 균형과 재균형을 이루는 점을 밝혔지만,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변화를 적절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R. K. Merton의 비판: 파슨스의 이론에 동조하지만 그의 이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 [2019-A-11] → 갈등을 낳는 요인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

사. R. K. Merton 중범위이론 [2019-A-11]

- 특정한 분야나 특수 주제에 대한 **중범위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계급의 범죄와 일탈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2019-A-11]

1) 기능 / 역기능 [2022-A-3]

- 기능: 사회제도, 사회현상의 결과가 체계유지와 존속에 긍정적인 경우
- 역기능

2) 명시적 기능 / 잠재적 기능

- **명시적 기능** [2022-A-3]: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의도되고 인식된 기능
- **잠재적 기능** [2022-A-3]
- 예시: 기우제
- 머튼은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의 호피족(Hopi tribe)이 행하는 기우제의 일종인 우무(雨舞, rain dance)를 예로 들었다. 머튼에 따르면, 우무가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해 줄 것이라는 호피족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우무의 **명시적 기능**에 해당하며, 우무가 호피족 사회의 집단 결속을 증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은 우무의 **잠재적 기능**에 해당한다. [2022-A-3]

아. 사회학적 관점: 갈등론 [2005-18]

- 사회는 지배-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질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1999-9] [공사 2003-16]

1) 사회문제

- 갈등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해야 사회문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1999-9] [2011-1차-33]
-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1999-9] [2011-1차-33]
-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개혁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99-9] [2011-1차-33]

2) 한계 [2005-18]

- 사회의 존속과 통합을 간과하고, 사회 집단들 사이의 협동과 조화를 경시한다.
- 사회 각 부분 간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한다.

[공사 2003-16]

조선 시대 서민층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稅)와 역(役)의 부담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관료제적 통치 구조 속에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서민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들을 운용함으로써 서민층을 억눌렀다.

[2005-18]

(가) 빈곤 문제는 사회나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봐.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은 잘못이야. 가진 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소득 분배 구조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나) 맞아. 부자들 중에는 부모한테서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극복하기 힘들잖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불신만 늘어나는 것 같아.

[2011-1차-33]

식량이라는 것은 중요한 희소자원의 하나다.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기아와 이로 인한 사망은 후진국이 선진국과의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0여년 동안 1인당 곡물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선진국이 생산하는 곡물의 3~5%만 이러한 나라들에 재분배하면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을 없앨 수 있다.

자. K. Marx

- 생산이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으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bourgeoisie)과 생산수단 없이 노동력을 가진 사람(proletariat) 사이의 계급적 생산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 지금까지의 역사를 모두 계급투쟁의 역사로 이해하였고, 원시 공산주의,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사회, 현대 자본주의로 이행해왔다. [1996-32] [2012-1차-31] [2015-A-기입8] →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 예측
- 사회란 경제적·물질적 토대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구성된 사회형성체로 규정하면서, 토대(생산양식)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반영한다. [2011-1차-14]
- 이때 지배계급은 국가를 통해 물리적 강제를 행사하거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기존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려고 한다. [1996-32]
-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생산력이 결정되고 생산력은 그것에 적합한 생산관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순간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따르지 못하면 모순이 발생하여 기존의 생산관계가 붕괴되고 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된다.
-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8-9] →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여 공동으로 생산하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로 인한 지배 및 갈등관계가 없는 공산주의로의 변화가 목적

차. Ralf Dahrendorf / Lewis Coser

1) R. Dahrendorf

- 모든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위계관계로 짜인 권위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사회갈등은 **권위의 차별적인 분배** 때문이다.
- 특정 결사체에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현재적인 이해관심과 대비되는 잠재적인 이해관계(latent interest)를 가지게 된다. 이때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유사집단(quasi group)을 형성하게 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익집단(interest group)으로 조직화하며 갈등집단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2) L. Coser 갈등의 기능

- 갈등은 사회변동과 안정 양면에 적극 기여한다.
- 집단결속의 기능(내집단의식으로 응집력), 집단보존의 기능(갈등을 발산하여 긴장해소), 집단구조의 결정(외집단의 압력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집단구조 결정), 이데올로기 창출(갈등의 정당성 및 타집단과 투쟁의식 고취하는 이데올로기 창출), 세력균형 창출(자기 집단 내 새로운 세력균형 창출), 집단동맹 확대(갈등과정에서 제3자와 동맹관계)

[2025-A-7]

1) 기본입장 [2005-14]

- 인간은 상징과 의미를 습득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작용은 타자로부터 일정한 반응을 기대하며 행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객체로 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 사회구조는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틀이다. →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2010-1차-30]
- 실재의 의미 [2003-17]: 실재는 그 사회의 맥락 및 구성원들의 의미부여에 따라 구성된다.

[2002-4]

베버는 인간 행동의 동기와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의 '이해'(Verstehen)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초가 되었다.

[2003-17]

인도의 한 외딴 마을을 지나는 도중 목이 몹시 말랐다. 마침 그 때 재래 시장의 길가 좌판에서 팔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얼른 노점상에게 서툰 인도말로 수박 한 조각을 주문하였다. 그 노점상이 수박을 막 자르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 손에 쥐어진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녹슨 식칼을 보고야 말았다. 잠깐을 망설이다가 노점상에게 "칼이 더러운 것 같으니 좀 닦은 후에 잘라 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바로 옆 흙탕물에 푹 담가 휘저어 꺼냈다. 그런데 그 주변 바닥에는 지저분한 오물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기겁을 하고 노점상에게 수박을 통째로 살 테니 자르지 말고 그냥 달라고 서둘러 말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평균'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과일 노점상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와 그 노점상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definition)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의 인식과 행동은 '평균은 존재한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평균이 우리 주변에 득시글거린다'고 하며 청결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균은 객관적으로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하며, 평균 감염은 평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와 노점상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평균에 관한 과학적 사실보다는, 오히려 평균의 존재에 관한 사회 문화의 분위기 탓이라고 여겨졌다.

[2005-15]

(가) 일탈은 행위의 속성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정치적·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약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일탈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일단 일탈자라고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자신이 일탈자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일탈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특정 행위나 현상을 일탈이라고 규정하는지, 그리고 일탈자라고 규정된 사람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실재(reality)는 다중의 구성 실재로서, 각 개인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현상에 대한 총체적 탐구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연구 반응자(대상자)들의 관점을 중시하며, 연구 현장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독특한 삶의 의미를 읽어낸다.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는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하게 계획된 설계보다는 발현적 연구 설계(emergent design)를 지향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 감정이입적 이해와 독특한 통찰력을 통해 해석과 판단을 내린다.

2) 한계 [2025-A-7]

- 개인의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구조나 권력관계 등 거시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타. M. Weber

1) 연구대상: 사회적 행위 [2024-A-3]

- 감정적 행위 [2024-A-3]: 희로애락과 같은 특정한 감정 표출 [2024-A-3]
- 전통적 행위 [2024-A-3]: 통상적인 관습과 관례에 따라 하는 행위 [2024-A-3]
- 가치합리적 행위 [2024-A-3]: 규범, 신앙, 이데올로기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024-A-3]
- 목적합리적 행위 [2024-A-3]: 권력, 부, 명예 등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2024-A-3]

2) 이념형 [2014-A-기입8] [2024-A-3]

- 사회적 행위나 사회현상들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 세세한 내용은 무시하고 특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한 순수 형식이자 분석적 구성물 [2024-A-3]
- 해당 주제에 관련된 **개별 현상들을 하나의 일관된 사유상(象)으로 종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은 검증 가능한 가설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도, 현상들의 통계적인 평균치도 아닌 순수한 **개념적 구성물**이다. 경험과학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실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적 실재들의 다양성이나 유사성을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재의 이해를 위한 발견적 장치이며 본질적으로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관념적이라는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범적이거나 당위적인 상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4-A-기입8]

3) 상상적 실험

- 어떤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가정된 요소를 상상 속에서 제거 또는 변경하여 그 요소가 과연 그 현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밝혀 보는 방법이다.

4) 합리화 과정으로서의 역사

- 전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이행을 **합리화** 또는 **탈주술화**가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했다. [2011-1차-30] [2015-A-기입8]
- 과학적 특징을 서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았다. [2015-A-기입8]
- 합리화란 **기술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삶의 조직화**를 의미하며, [2015-A-기입8]
- 또한 과학, 근대 기술과 관료제의 발달을 통틀어 합리화라고 지칭했다. [2015-A-기입8] → 예측 가능성,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음
- 단선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는 대체로 카리스마적 지배 → 전통적 지배 → **법적·합리적 지배**로 변천해왔으며, 관료제의 발달을 낳았다.
- 종교에서도 탈주술화를 통해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변화하였다.

5) 합리화의 역설

- 형식합리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수단을 추구
- 실질합리성: 목적 자체를 추구
- 현대사회가 합리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현대사회가 형식합리성의 추구로 나아가면서 실질합리성이 훼손되는 합리화의 역설로 인간을 수단화하여 '강철 외피'에 가두는 비판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대적인 관료제의 확산이 인간을 수단화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철창'에 가둘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형식 합리성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관료제에 기초한 지배는 비록 합리적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사회적 삶의 모든 부분을 규제하려 함으로써 인간 정신을 말살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운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통감하였다. [2018-A-6]
- 베버의 합리성 개념의 현대적 의의는 형식적 합리성 개념과 실질적 합리성 개념의 차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합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제 행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계산의 정도와 그 경제 행위에 의해 실제로 적용된 계산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정의'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든 작동 메커니즘에서 가장 우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형식적 합리성'이다. 반면 실질적 합리성이란 주관적인 행동의 범위에서의 행동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근대 이전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신민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합리성은 실현 방법이나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6)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96-35]

- 문화적 관념의 변화(합리성의 변화)가 사회 변동의 동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1996-35]
- 유럽의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 교리에 따라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면서 근면과 금욕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태도와 노동윤리가 크게 기여했다. [1996-35] → 종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봄

과. 연극학적 이론 [2021-B-9] (Erving Goffman)

1) 기본입장

- 사회생활이란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 위에서 주어진 대본, 무대장치와 소품, 그리고 관객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며 **연기**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2021-B-9] [2025-A-7]

2) 인상관리 [2021-B-9]

- 인상 관리란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노력하는 행위, 타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행동을 말한다.
- 행위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인상을 의식적으로 구성한다. → 실패시 낙인, 역할거리

3) 역할거리(역할소원)

- 자신의 연기에서 기획하는 자아 이미지와 실제 역할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실생활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역할 수행에 대해 긴장과 부담을 완화하고, 대인관계의 충돌을 줄인다.

4) 낙인

-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당위의 사회적 정체**)과 실제의 모습(**실제의 사회적 정체**)간의 간격을 **낙인**이라고 한다.
- 낙인찍힌 사람과 정상인 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은 한 개인이 드러난 낙인 혹은 감춰진 낙인 중 어느 낙인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드러난 낙인이란 행위자는 그 차이점이 관객에게 알려진 것이며 감춰진 낙인은 관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때 감춰진 낙인을 가진 사람이 직면하는 연기적 문제는 관객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즉 낙인찍히게 되면 무대에서 어떻게 인상관리를 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됨.

5) 관련 연구: A. R. Hochschild, C. W. Mills

- 혹실드에 따르면, 고객응대 서비스업의 성패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갑을 열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래서 기업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감정** 노동을 요구하며 **표정, 미소, 몸짓**을 훈련시킨다. 서비스 노동자는 기업의 요구대로 자신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2025-A-7]

6) 구조기능주의 입장의 비판 [2021-B-9]

-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측면 간과

[2021-B-9]

『일상생활에서의 자아의 표현(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1959)』이라는 저서를 발표한 미국의 사회학자 A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아와 사회 현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상호작용 과정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연극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본, 제공된 무대 및 소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A는 자신의 **연극학적**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인상관리** 개념을 제시하였다. A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호 작용 중에서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 과정(**연기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A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상관리**를 한다. **인상관리**는 의도된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몸짓, 부당한 강요 그리고 실수와 같은 예기치 않은 행동들에 대처하는 방법 등도 포함한다.

하. 교환이론 (George C. Homans)

1) 기본입장 [2009-1차-30]

- 행위자를 **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불균형과 잠재적인 갈등이 가득 차 있는 복잡한 교환구조의 조직화된 의사결정자로 파악한다. → 상.상에서는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지만 교환이론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면 사회의 수요나 기능적 요건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 간 상호작용의 동기나 감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의 **교환** 양식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강화하거나 처벌하고 이에 따라 각자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 [2010-1차-30]

2) 심리학적 교환주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 원리

- **성공명제**: 사람들은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0-1차-30]
- **자극명제**: 과거의 자극이 원인이 되어 개인이 보상을 받았다면, 현재의 자극이 유사하다면 과거와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치명제**: 특정인의 행위 결과가 자신에게 큰 가치를 가지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 **박탈-포만명제**: 보상을 더 받을수록 그 이상의 보상도 점차 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 **공격-승인명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처벌을 받으면, 공격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올라가며**, 이후 그러한 공격적 행위의 결과를 가치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대했던 보상보다 더욱 큰 보상을 받으면 더 인정받고자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합리성명제**: 개인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교환기준은 사회규범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0-1차-30] 특정인이 대안적 행동 중 특정 행동을 선택할 때 그 시점에서 파악하는 그 결과의 가치(v)에 그 결과를 얻을 확률(p)을 곱한 값이 더 큰 행동을 선택할 것이다.

3) 비판

-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교환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
- 공식화된 규범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행동을 파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즉 **사회질서를 설명하기 어렵다.**

거. 현상학적 사회학 (Alfred Schütz)

-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사회체계(**생활세계**)를 형성하지만 객관적인 질서도 있음을 인정함.
- 일상생활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은 **축적된 상식적 지식**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며,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은 대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가정에 의해 유지된다(상호주관성). 이러한 지식을 이용한 **전형화**(유형화된 범주)와 **처방**(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일상생활이 관리된다.
- 사람들의 상식적 지식에 의해 구성된 **1차적 구성물**을 바탕으로 사회학자는 그에 대한 **이념형인 2차적 구성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행위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너. 민속방법론 (Harold Garfinkel)

1) 기본입장

- 개인들이 사회에 중속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은 사회질서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사회에 대해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러한 질서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21]
- 따라서 개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2008-21] → 사람들은 **상식, 절차, 고려**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 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현실 상황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2008-21] [2010-1차-30] → **지표성, 설명가능성, 성찰성**을 지표로 분석하였다.
- **위반 실험 [2008-21]: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교란시키는 위반실험을 통해서 일상적 행위의 정상적인 규칙을 찾으려 하였다.**

더. 위험사회 (Ulrich Beck)

- 근대 사회의 정치는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잃고 있다. 제2차 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국면에서 산업사회는 사라지고 위험사회로 향해가고 있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되는 위험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 이때 위험은 공간·시간·사회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도록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 현대 사회가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재해나 위난으로부터(외부로부터) 위험이 파생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 우리의 사회 발전으로부터(내부로부터, 제조된) 위험이 발생한다. [2022-A-10]
- 현대성으로부터 파생된 위험은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찰적**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2-A-10]

[2022-A-10]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는 각종 사건·사고 중 상당수는 특정 시점에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협이자 위해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것의 근원을 거부하지 못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다. 사회학자 백(U. Beck)은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면서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하였다. 백은 전통 사회의 위험과 현대 사회의 그것은 파생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백은 산업 사회의 발전이 이성에 대한 믿음,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 생산력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같은 근대성(modernity)의 뿌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전쟁, 핵 위협, 감시 체계, 환경 위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근대성의 뿌리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성찰이란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위해 조직화된 산업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의미한다.

2. 개인과 사회

가. 사회화 [2003-15]

-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규범과 생활양식을 내면화하는 과정

[2003-15]

(가) 유토피아인들은 인간들이 황금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어리석고 부도덕한 인간이 황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유토피아인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황금보다는 인간을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생활 양식의 배경에 감추어져 있던 원인들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주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답은 신밖에 모른다'라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지어 생활 양식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가치롭다고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1) 기능

- 개인적: 자아정체성 형성
- 사회적: 사회 규범 및 가치를 전승

2) 사회화 기관

가) 내용에 따른 구분

- 1차적 사회화 기관 [2011-1차-31]: 유아기와 아동기, 가족과 또래 친구들과 간의 사회화
- 2차적 사회화 기관: 청소년기와 성인기, 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나)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로 구분

3) 유형

- 재사회화: 급격한 개인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자신의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규범, 지식, 가치, 정서들을 습득하여 새로운 태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회화에 포함된다.
- 예기 사회화: 앞으로 자신이 맡으려고 하는 지위에 부합하는 가치, 태도, 기술을 미리 습득하는 것.
- 탈사회화: 기존의 사회화되어 있던 행동을 버리는 것.

4)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가) 보편적 성숙 및 사회통합 과정: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 사회화를 일방적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화를 단순히 수동적 학습과정으로 보는 기능론의 시각과는 다르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발달이 사회화의 핵심이라고 간주한다.

(1) 거울자아 이론 (C. H. Cooley)

- 거울자아: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삼아 자기성찰성**을 통해 자아관념을 형성해가는 자아 [2010-1차-30]

(2) 자아발달 이론 (G. H. Mead)

- 개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서 **의미 있는 상징**을 중요시했다. 개인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몸짓이나 언어를 통한 의미 교환, 즉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공유된 경험이 세계가 형성된다.
- 자아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인 **주체적 자아(I)**와 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인 **대상적 자아(me)**로 구분하면서, 어린 시절 상징적 몸짓들을 통해 발달하는 **자기성찰성**을 통해 주체적 자아와 대상적 자아의 통합체로서 자아의 인성을 형성해가게 된다.
- 자아 형성과 발달 3단계 중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단순히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자극에 대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역할 모방을 한다. [2023-A-3] → 유의미한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모방
- 두 번째, **놀이 단계**는 놀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의미 없는 모방이나 흉내를 넘어서 **자아상이 도출될 수 있는 최초의 역할 취득**이 이루어진다. [2023-A-3]
-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취할 수 있는 **게임 단계**로, 실제로 구체적인 역할을 취득하여 일관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이 정해진 **규칙을 인지**하고 어떤 역할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사회화 과정 전체의 통일성을 표상하는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과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동체의 보편적인 신념,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 [2023-A-3]

나) 보편적 성숙 및 사회통합 과정: 기능론적 관점

- 사회화를 사회 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하고, 사회 유지 및 존속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은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 Durkheim: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의 집합주의적 규범과는 다른 **도덕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Parsons: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다) 지배 이데올로기 습득 과정으로서의 사회화: 갈등론적 관점

-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습득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간다.
- 학교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피지배대중이 자본주의적인 규범과 가치에 순응하게 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Althusser: 대항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

나. 지위와 역할, 사회집단

1) 지위

- 지위: 어떤 집단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이 속해있는 위치
- 귀속지위: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 관계없이 저절로 주어지거나 속하는 지위
- 성취지위: 본인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지위

2) 역할

- 역할 기대: 지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1992-4]
- 역할 행동: 실제로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 수행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1992-4]

3) 역할 갈등

- 역할 갈등: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기대되는 역할들 간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역할 수행할 수 없을 때**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1992-4] [2005-16]
- 역할 긴장: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이** 기대될 때 생겨나는 긴장.
- 역할 모순: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서로 다른 역할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지위가 요구하는 역할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갈등. [2005-16]

[2005-16]

(가) 고등 학교 시절 문제아였던 K는 한 교사의 따뜻한 격려와 정성어린 지도로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후일 경찰관이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교사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게 되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 무역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Y는 회사로부터 대단히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갈망해 왔던 해외 지사 파견 근무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함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한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4) 사회집단, 사회조직

- 사회집단: 둘 이상의 사람들이, 소속감을 지니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관행이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가) 결함의지에 따라: 공동체, 결사체 (Tönnies) [1995-13]

- 공동체: 인간들의 자연적 의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집단

ex) 가족, 이웃, 또래집단, 농촌공동체

- 결사체: 합리적 의지에 입각한 선택을 통해 생겨난 집단

ex) 학교, 회사, 정당

- 여기서 자연적 의지란 어떤 행위 자체가 지닌 내재적·목적적 가치에 기초한 것인 반면, 합리적 의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의 수단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 공동체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결사체가 지배적인 사회로 변동한다고 보았다(단선진화론적 관점).

나) 접촉방식에 따라: 1차 집단, 2차 집단 (C. H. Cooley) [1995-13]

- 1차 집단: 친밀하고 대면적인 접촉으로 공동생활과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 2차 집단: 간접적 접촉과 수단적 만남을 바탕으로 부분적·탈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우세한 집단

- 참고적으로 2차집단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1차집단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우 1.5차 집단으로 부르기도 하며(회사 내 동호회 등),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은 3차 집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 소속감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 (Sumner) [2004-6] [2024-A-6]

- 내집단 [2002-9]: 자신이 소속감을 가진 집단

- 외집단: 소속감을 가지지 않은 집단

[2024-A-6]

특정 집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소속감에 따라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감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집단을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져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라) 개인의 행동기준에 따라: 준거집단 (R. K. Merton) [1994-11]

- 준거집단 [2002-9] [2004-6] [2015-A-기입7]: 한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얻고 행동의 기준을 배우며, 그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게 되는 집단. 세부적으로 표준준거집단과 비교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024-A-6]

- 표준준거집단 [2007-21]: 개인들에게 사고와 행위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의 표준이 되는 집단 [2007-21]

- 비교준거집단 [2007-21]: 단순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집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2007-21]

☆ 준거집단과 내집단/외집단 [2024-A-6]

- 우리의 행동은 자기가 소속된 내집단의 행동과 일치할 때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 모델이 되는 준거집단이 내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2002-9]

- 준거집단과 내집단이 동일한 경우, 그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 반면 자신들만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외부 사람들을 배척하여 분파주의적·집단이기주의적 성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파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면 사회 전체적인 통합에 장애요인이 된다. [2002-9] [2024-A-6]

- 준거집단과 내집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준거집단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의지나 만족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2024-A-6]

[2002-9]

김동강씨는 수물 지역 주민이지만 홍수 조절과 물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2004-6]

갑순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전소설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고전소설 읽기 동아리’에 소속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고, 그 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했다. 그렇지만 학교 공부에 지장을 줄까봐 그 동아리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2007-21]

(가)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인 준서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교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 대한 불만 속에서 지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공연 연습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심란해져서 학교에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나) 김 과장은 박 부장과는 같은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일한 시기에 지금의 회사에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성격도 비슷하여 절친하게 지내왔다. 어느 날 친구인 박 부장은 승진하고 자신은 탈락하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2015-A-기입7]

사회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개인은 집단의 규범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은 않아. 개인은 행동의 지침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염두에 두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염두에 둘 수도 있어. 이렇게 개인이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집단을 () (이)라고 하지.

그러면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집단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겠군요.

그렇지.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집단을 지침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지.

[2024-A-6]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얻고 행동의 기준을 배우며, 그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게 되는 집단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거나 행동할 때 비교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생관과 행복감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속집단이 준거집단과 다른 경우,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속집단에 불만을 가져 집단 구성원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 개인의 준거집단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그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마)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1) 공식 조직

- 현대사회에서 2차 집단은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공적이고 합리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니며,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도구적·탈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공식조직이라고 불린다.

(2) 비공식 조직 [2008-20] [2017-B-5]

- 공식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으로, 구성원들 간의 **사적·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식조직과 다르다.
- 긍정적 측면으로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책임 행사가 가능하다. [2008-20] [2017-B-5]
- 부정적 측면으로 비공식 조직의 이익이 공식 조직의 이익과 상충할 경우 공식 조직 내의 협력을 어렵게 하며, 공식 조직 내 파벌을 형성하여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써 공식 조직의 해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2008-20] [2017-B-5]

[2008-20]

베버(Weber)는 조직을 인간의 행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재화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 합리성을 극대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료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관료제 내에서 개인 간 관계는 위계화된 권위체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성문화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종종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위계가 무시되는 사회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공식적인 서열체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회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사회 관계는 비공식 조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집단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7-B-5]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1960년대에 소득세 탈루를 감시하는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 조직에서는, 직원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직속 상사와 의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자기와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과 의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상사를 찾아가면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대부분의 직원은 상사를 찾아가기를 꺼렸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은 규칙을 어기고 동료들끼리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그 결과 비슷한 직급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리'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학자는 공식적 규칙보다 비공식 조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책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 공식 조직 구분 (Etzioni)

- 공식조직은 조직의 통제방식과 구성원의 순응방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A-5]
- 자발적 조직 [2019-A-5]: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시민단체, 종교조직, 전문직협회 등 오늘날 많은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자발적 조직은 도덕적 권위가 통제의 주된 원천이고, 구성원들은 자발적·규범적으로 순응한다. [2019-A-5]
- 강제적 조직 [2019-A-5]: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고 강요된다. 주로 물리적 힘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은 소외된 순응을 하게 된다. 주로 교도소나 의무복무에 해당하는 군대 등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2019-A-5]
- 공리적 조직 [2019-A-5]: 구성원들이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입한다. 통제의 주된 원천은 조직의 금전적 보상이며, 구성원들은 이해타산적 순응을 하게 된다.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 포기하거나 탈퇴한다. [2019-A-5]
- 이와 같은 조직의 유형구분은 순수한 형태이며, 많은 공식조직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았다. [2019-A-5]

바) 수혜자에 따른 구분: 호혜적 결사,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 (Blau & Scott)

- 호혜적 결사: 조직 구성원들이 일차적 수혜자
- 사업 조직: 조직 소유자가 일차적 수혜자이며,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도 부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서비스 조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부의 고객 또는 일반 대중이 일차적 수혜자
- 공익 조직: 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 대중이 일차적 수혜자

사) 자발적 결사체

-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으로, 공식조직일 수도 있고, 비공식조직일 수도 있다.

아) 관료제 (M. Weber)

- 조직을 인간의 행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재화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자본주의에서 사회 **합리성**을 극대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료제를 제안하였다. [2001-13] [2008-20] [2015-A-기입8] [2025-B-1]

(1) 관료제의 특성 [2017-B-5]

- 업무의 **분업화** → 조직 구성원이 전문성을 지니게 되어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2001-13]
- **위계서열** 체계 [2001-13] [2025-B-1]: 구체적인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지시된다. [2001-13] → 하급자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권력의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성문화된 규칙과 절차** [2001-13]: 의무를 합당하게 수행하는 명백한 기준 제시 [2001-13] →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는 이전과 똑같이 수행되어 업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 / 목표-수단 전치 현상이 나타나며, 개인의 창의성과 솔선수범을 약화시킨다.
- **탈인격적 인간관계**
- **전문성에 근거한 채용과 승진**(연공서열 중시) →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익힐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협소한 부문의 시각에 매몰되어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다. 피터의 원리, 딜버트의 원리.

(2) 관료제의 문제점 [1992-21] [2018-A-6] → 도구적 행위 (Merton: 형식주의)

- **목적 전치 현상** [2001-13]: 관료제적 규칙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목표 그 자체가 되는 상황 [2001-13]
- 의례주의와 형식주의 [1992-21]: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익숙해서 독특한 문제나 비상사태에는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이처럼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게 되면 매사에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게 되어 Red tape 문제가 나타난다.
- 권력의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 집중화된 권위는 정보의 소통을 제약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025-B-1]
- 변화에 대한 저항: 조직의 개혁이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직의 규모와 조직의 존속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예산과 인원, 공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파킨슨의 법칙

(3) 관료제의 문제점 관련 용어

- 레드 테이프 현상 [2010-1차-31]: 의례주의와 형식주의로 인하여 서류에만 매몰되는 것
- **파킨슨의 법칙** [2010-1차-31]: 관리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중요성이나, 때로는 업무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세를 위해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2010-1차-31]

많은 직장인들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자기 일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사가 영입되면 결재라인만 복잡해진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부서가 생기고,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피터의 원리 [2010-1차-31]: 모든 개인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단계까지 승진**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직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에 의해 채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0-1차-31]

○○시의 고위 관리들은 △△국의 중간 관리자인 갑의 원만한 대인 관계와 호의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전임 국장이 퇴임하자 갑이 국장이 되었는데, 갑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제안을 수용하여 중간 관리자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그 결과 초래된 정책 갈등과 계획의 잦은 변화는 △△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장인 갑은 단지 전달자의 역할만을 한 것이다. 갑은 유능한 중간 관리자였지만 무능한 국장이 된 것이다.

- 딜버트의 원리 [2010-1차-31]: 가장 **무능력한 직원이** 회사에 가장 작은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에 따라 결국 중간 경쟁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장 먼저 승진**한다.

자) 탈관료제 [2001-13]

-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 사회에서 관료제는 일시적인 문제해결조직(ad-hocracy)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 [2001-13]
-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 [2001-13]
-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2025-B-1]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함

※ 사례

- 팀제 조직 [2025-B-1]: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팀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해체
- 네트워크형 조직 [2025-B-1]: 의사결정 권한을 각 조직으로 분산하는 분권화된 조직.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공유하되, 그 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무 조직이 자율성을 갖는다. [2025-B-1]

다. 사회적 상호작용

-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상징을 매체로 사회적 행위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1) 유형 [1993-4] [1996-34]

- 교환: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서로에게 행위
- 협동: 공동의 규칙 아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
- 경쟁: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상호작용이다. [1993-4]
- 갈등: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면 집단의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1993-4]
- 강제: 갈등의 상황에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훨씬 힘이 강하여, 관철시키려는 경우.

[1996-34]

- ㉠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 ㉡ 교사가 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

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구조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실재론, 사회명목론

2) 구조화 이론 (A. Giddens)

- 구조와 행위는 필연적으로 연결되며, 대척점이 아니다.
- 구조의 이중성: 행위는 구조의 틀 속에서 일어나며, 동시에 구조를 변형하거나 재생산한다.

마. 일탈이론

1) 일탈의 상대성

- 규범의 상대성: 사회적 규범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2) 일탈의 사회적 기능

- 사회규범을 확인하여 행동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 사회조직의 결함을 알려준다.
- 사회변동을 유발한다.

3) 생물학적 접근

4) 심리학적 심리적 접근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접근 [1992-1] [1996-30]

5) 아노미 (Durkheim)

- 아노미 [1999-9]: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규범들이 해체되는 반면에 새로운 사회규범이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대**에 개인들이 **규범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
- 즉 일탈은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이며, 기능적인 것이다. 일탈행위의 빈도가 올라가는게 병리적인 현상임.

6) 아노미 (Merton) [1996-30]

-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을 바라보고 있다. [2000-12] →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2000-12] [2017-B-4]
- 사회체계 내에서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수단’ 간의 불일치**를 아노미 상태로 규정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탈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1992-1] [2000-12] [공사 2010-2차-3] [2014-A-논술6] [2019-A-11] [2024-B-7] → **사회구조의 모순**이나 긴장상태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본다(Cohen과 공통) but 개인의 적응양식에 관심
- 많은 하류계층 사람들에게 부의 성취라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만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없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성공하려 노력하는 혁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가) 적응 양식 [2014-A-논술6] [2019-A-11]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적응 양식을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항형(rebellion)’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00-12] [공사 2010-2차-3]
- **개인의 사회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회에 대한 적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2019-A-11]

사례	일탈X	하층민의 절도 [공사 2010-2차-3] [2017-B-4] [2019-A-11]	무사안일한 관료 [공사 2010-2차-3] [2024-B-7]	만성적 알코올중독	사회운동가 히피
적응 방식	동조	혁신 [공사 2010-2차-3] [2017-B-4]	의례 [공사 2010-2차-3] [2024-B-7]	도피	반항
문화적 목표	+	+	- [2024-B-7]	-	-(+)
제도적 수단	+	-	+ [2024-B-7]	-	-(+)

나) 비판 [2000-12]

- 갈등론적(비판 범죄 이론) 관점: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공사 2010-2차-3]
- 상징적 상호작용론(차별교제 이론) 관점: 개인의 상호작용과정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함 [공사 2010-2차-3]
- 비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재산범죄는 설명하지만 폭력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
- 상류계층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

[2014-A-서술6]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왜 부유한 국가에서도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을까? 자기 규율과 노력에 의해 물질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 가치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 Merton)에 따르면 이런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공의 기회가 제한적으로만 주어지거나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튼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 성원의 적응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2017-B-4]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및 경제적 성공이라는 가치가 강조되며 구성원들이 이를 목표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은 자기 규율과 노력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출발하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할 뿐이다.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주어져서 공유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무능력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압력이 생겨난다. 일탈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동등한 기회의 결여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이론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과 범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특정 계층이 특정한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A-11]

특정 사회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가 경직된 사회계층 구조 혹은 심한 불평등 구조와 결합했을 때, 그 사회에 아노미가 팽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제도적 수단의 정당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4-B-7]

머튼(R. Merton)은 아노미 개념을 문화적 목표와 (㉠) 간의 괴리라고 정의하며, 구조적 차원에서 하위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 부라는 문화적 목표를 받아들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이/가 제한됨으로써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 상태가 아노미이다. 문화적 목표는 일률적으로 강조되지만 (㉢)은/는 사회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위계층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그는 아노미 상태가 되었을 때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을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 형식과 의식에 집착하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은 (㉣)이다. 머튼의 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아노미 이론이 어느 사회에서나 문화적 목표와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가치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헨(A. Cohen)은 머튼과 마찬가지로 하위 계층의 좌절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하위 계층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문화가 행위규범의 준거가 되는 학교교육에서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이들은 중산층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을/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행을 하게 된다.

7) 하위문화 이론: 비행하위문화 이론 (Cohen)

- 중산층 중심의 사회의 중심문화(지배문화)가 형성되고, 하층의 경우 중산층 문화라는 문화적 목표에 대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좌절을 겪게 된다. 이때 머튼이 제시한 혁신이 나타나기보다는 거부를 통한 정반대의 반항적 성격의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 [1992-1] [2017-B-4]

- 다른 계층의 비행은 설명하지 못하며, 하위계층 중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8) 차별적 교제이론 [2004-6] [2015-A-서술4] [2021-A-2] (Sutherland)

- 상징적 상호작용론 입장에서 범죄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9-1차-30]
- 일탈의 원인으로 가치 합의의 부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2009-1차-30]
- 이민자 집단이 준법 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한 점에서 갈등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9-1차-30]

가) 기본 명제 [2009-1차-30] [2010-1차-33] [2021-A-2]

1.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2021-A-2]
2. 학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2021-A-2]
3. 범죄행위의 학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친밀한 인격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2013-1차-30]
4.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학습내용은 범행 기술, 범행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등이다.
5. 범행동기나 충동은 현행 법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습된다.
6. 법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2021-A-2]
7. 차별적 교제의 양상은 빈도, 지속시간, 우선성, 강도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2021-A-2]
8. 범죄적 또는 비범죄적 유형과 접촉하면서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행위의 학습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들과 동일하다.
9.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에 의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구나 가치는 범죄적 행위뿐 아니라 비범죄적 행위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 한계 [2015-A-서술4]

- 학습 이전에 범죄문화 자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움
- 일탈자와 장기간 접촉해도 일탈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충동적 범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접촉을 통하여 일탈을 학습할 수도 있음

[2004-6]

갑돌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여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냈다. 그러다 2학년이 되면서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우연히 '컴퓨터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킹 기술에 관심 있는 선배나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갑돌이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해킹에 관한 지식을 배워 실력 있는 해커가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갑돌이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터넷 해킹 행위를 했고 급기야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5-A-서술4]

범죄 행위는 글쓰기, 읽기 등의 다른 모든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와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한 결과이다. 법 위반에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본인도 법 위반에 대해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때 습득하게 되는 내용은 범죄 기술, 범죄 동기, 태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습득 과정은 주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가까운 친구, 가족, 친척과 같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9)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2021-A-2] (R. Akers)

- 학습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적 조건화.
-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Sutherland와 유사) 개인은 범죄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일탈정의를 배우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와 같은 일차적 집단으로, 해당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빈도, 지속시간, 우선성, 강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커진다.
- **정의**(definition): 주어진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극적(positive) 정의를 가지거나 중화적(neutralizing) 정의를 가질 때 가능하다. 적극적 정의는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중화적 정의는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여 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간의 균형이다. 즉 **비행하는 것은 보상이 처벌보다 더 클 경우**에 일어난다.
- **모방**(imitation):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위의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낙인 이론 [1996-30] [2015-A-서술4] [2018-A-12]

- 사회의 지배 규범이 이를 어긴 자를 일탈자로 낙인찍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발생한다. [2002-4] [2013-1차-30]
- 비행은 행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비행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2010-1차-33]
- 일탈자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 즉 의미부여 과정에 관심을 둔다. [2002-4] [2013-1차-30]
- 상.상 관점

[2005-14]

(가) 일탈은 행위의 속성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정치적·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약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일탈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일단 일탈자라고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자신이 일탈자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일탈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특정 행위나 현상을 일탈이라고 규정하는지, 그리고 일탈자라고 규정된 사람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 F. Tannenbaum

- 소년범은 우리가 특정인을 나쁘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나빠지게 된다.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제하는 **악의 극화** 과정 때문에 범죄가 형성된다. 악에 대해 적게 말하고 선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한다.

[2013-1차-30]

범죄자를 만드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그의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제하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법 위반 행위는 비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드문 현상이지만, 체포 후 공식적 제도에 편입되어 가는 단계에서 일탈의 유형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일탈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일탈의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요소이다.

나) Goffman → 연극학적 이론에

다) Becker [1995-12]

- 일탈자라는 딱지를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사람(**아웃사이더**)에 대해 행동이 정상이더라도 딱지와 관련된 특성만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

[2015-A-서술4]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하여 자아를 형성한다. 만약 중요한 타자가 어떤 사람을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기면서 그와 교류한다면, 자기실현적 예언이 작동되어 그 사람은 실제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범죄자가 되는 과정도 이와 같다. 사회 집단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위반한 특정인을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함으로써 일탈을 만들어 낸다. 즉 일탈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처벌을 '위반자'에게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 Lemert

- 일차적 일탈: 개인적 또는 상황적으로 일시적·경미하게 발생하는 일탈.
- 일차적 일탈을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받음으로써** 개인에게 낙인을 찍으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반영하여 자아 개념을 재구성**하게 된다. [2018-A-12]
-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 반응에 따라 **자아 개념을 수정한 경우**, 그 사람은 **일탈적 삶에 완전히 빠져들거나 일탈 경력에 관여하게 되는 이차적 일탈**이 나타난다. [2018-A-12]

[2018-A-12]

공식적인 사회 통제는 범죄 행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그 과정이 범죄자라는 부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 의의

- 사회적 제재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즉 제재가 범죄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함.
- 사회통제적 낙인은 재사회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사회적 지위를 돌려주는 탈낙인화가 뒤따라야 한다.

바) 한계 [2015-A-서술4]

- 범죄의 원인을 범죄행위의 반응으로 돌려 순환론적인 논리의 문제점이 있다.
- **일차적 일탈에 대한 설명 부족**
- 낙인을 받음으로써 일탈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 기능론적 입장: **사회성원이 합의한 보편적 기준을 간과하여** 공식적 처벌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교화의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다.** [2018-A-12]
- 차별 교제이론 입장

11) 비판범죄론 (갈등론적 관점) (R. Quinney) [2012-2차-4]

- 낙인을 찍는 기준이 되는 그 사회의 지배 규범이 어느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둔다. [2002-4]
- **일탈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피지배계급의 저항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국가에 의해 일탈행위로 규정된다.** [2002-4]

[2012-2차-4]

오토바이 폭주는 사회 문제로 부상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 차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하나의 청소년 '문제'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 정의는 법적으로 공식화된다.

그러나 '폭주족'이라 불리는 모든 청소년이 실제로 폭주족 즉, 일탈자는 아니다. 이와 같은 오토바이 폭주족 사례를 통해 일탈에 대한 정의, 일탈의 법적 공식화와 시행, 그리고 일탈에 대한 관념의 사회적 확산 등에 의해 일탈 행위가 사회적으로 구축됨을 알 수 있다.

12) 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Travis Hirschi) [1996-30]

- 사람들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통제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에 순응하게 된다. [1996-30]
-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유대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강할수록** 개인의 행동은 사회규범이나 법에 순응하도록 통제되는 반면,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나 애착이 약하거나 깨지면 일탈이 발생한다.** [1996-30] [2010-1차-33] [2013-1차-30]
- 개인을 사회에 결합시키는 4가지 결속 유형: 애착(부모, 친구와 맺는 관심), 헌신(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 관여(주류 행동에 관여), 믿음(법과 권위에 대한 존경)을 높여주면 유대가 강해진다. [1996-30]

바. 사회 계층화 현상

1) 계급 (Marx)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 집단 [2012-1차-31] → 단절적
- 노예제는 노예 소유자, 봉건사회는 토지 소유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소유자가 지배 집단의 중심이다. [2012-1차-31]

가) 계급의식 [2012-1차-31]

- 적대적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집단적 적대의식과 내부적인 동류의식 내지는 **계급으로서의 자기의식**을 갖게 되며, 조직을 결성하여 혁명운동을 벌이면서 사회변혁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계급의식을 지니지 못하는 계급인 즉자적 계급, 계급의식을 지닌 대자적 계급을 구분했다.

나) 프티부르주아지 [2020-A-3]

-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중간계급으로, 결국은 대자본가와 경쟁에서 뒤떨어져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았다. [2020-A-3]

다) 모순적 계급 위치 (E. Wright) [2013-1차-32] [2020-A-3]

-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급이 분화되어 다른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상층 노동자가 생겨나, 이들을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과 구분하여 신중간계급이라고 한다. 모순적 계급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산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들은 통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있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이처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리·감독자나 화이트칼라는 자본가도 육체노동자도 아닌 모순적 계급 위치에 있다. [2020-A-3]

2) 계층 (Weber)

- **권력·부·명예**를 둘러싼 경쟁의 결과, 권력의 불평등은 **파당**, 부의 불평등은 **계급**(생산수단 통제여부뿐 아니라, 기술이나 신용, 자격 등 **개인의 시장위치**가 계급에 영향)을, **명예**의 불평등은 **지위집단**을 만들어 낸다. [2012-1차-31] [2016-A-4]
-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갖는 **다측면성**과 복합성을 강조한다. [2013-1차-32] [2014-A-기입9]
- 이들 불평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원이 독립적이라고 본다. → 예를 들어, 권력은 계급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계급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2013-1차-32]

[2013-1차-32]

사회의 계급 분할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적 조건에는 생산 수단의 통제 여부 외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신용, 특정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의 소지 여부 등도 포함된다. 계급분할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종종 계급 분할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 '청빈'이라는 말은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영국에서 뼈대 있는 가문 출신 사람들은 설사 그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

☆ **지위 불일치** 현상 [2014-A-기입9]

- 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 이에 심리적 좌절감을 느끼고 개인적인 노력을 하거나 사회체제 개혁을 시도하기도 한다.

[2014-A-기입9]

K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노력과 적지 않은 행운으로 최근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다. K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자신도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K는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이웃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력도 매우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K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력에서야 빠질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직업이나 학력은 뒤처진다고 느꼈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사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었다.

3) 바라보는 관점

- 사회적 불평등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총체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다.

가) 기능론적 관점

- 계층 체계는 개인의 필요성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10-1차-32]
- 보상의 크기는 그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과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의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 결정된다. [2010-1차-32]
- 계층 체계는 그 속의 개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위들의 체계에 관한 것이다. [2010-1차-32]
- 사회적 지위의 기능적 중요성과 보상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2010-1차-32]
-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존속에 기능적이다. [1994-20]

나) 갈등론적 관점

- 계층 체계 내에서 위계적으로 서열화된 집단 간의 구분은 단절적이다. [2010-1차-32]
- 계층화의 결과로 하위 계층의 사회에 대한 충성심과 참여의식이 약화된다. [2010-1차-32]
- 직무 간 중요성 차이는 합의된 규범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불평등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다) 불평등의 문화적 재생산 (Bourdieu)

- 생활양식의 선택이 중요한 계급 지표라고 주장한다.
- 경제 자본이 현대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면 계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22-B-1]
- 개인은 점점 더 경제적 요인들보다 교육, 예술에 대한 이해, 소비와 여가생활 등 문화자본에 기반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는다.
- 예를 들어, 상품 소비에서 상징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소비 행위는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급 간 생활양식의 차이가 강화된다. [2011-1차-31]

(1) 자본의 종류

- 경제자본: 물질적 자원. [2022-B-1]
- 문화자본: 가정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의 지식, 취향, 스타일, 학위 등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소유나 증여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은폐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사회화 등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되어 '상속받은 재산'과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07-24] [2022-B-1]
- 문화자본의 형태에는 가정환경, 가정교육에 의해 소양이나 매너 등 내면화된 문화자본뿐 아니라, 소장한 그림과 골동품 등과 같은 객관화된 문화자본, 자격증이나 학력과 같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있다. [2007-24]
- 사회자본: 친구나 다른 관계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뜻하는 것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자원을 의미한다. [2022-B-1]
- 상징자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명망, 지위,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 존경을 가리킨다. 좋은 평판을 소유한 것을 포함해 상징자본이 사회계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2022-B-1]
- 자본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어떠한 자본의 소유는 다른 자본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2-B-1]

[2011-1차-31]

부모의 취향은 자녀의 의생활에서 스타일 지향성과 식생활에서 건강식 지향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예술적 취향과 인지적 능력을 갖춘 경우 그 자녀는 소비 대상의 상징적 가치를 중시하는 품격 지향적 소비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

[2022-B-1]

부르디외(P. Bourdieu)는 계급 위치를 결정짓는 네 가지 형태의 자본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 자본은 물질적 자원을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경제 자본이 현대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면 계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세 가지 자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문화 자본은 개인의 지식, 취향, 스타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소유나 증여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은폐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사회화 등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되어 '상속받은 재산'과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셋째, 사회 자본은 친구나 여타 다른 관계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뜻하는 것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자원을 의미한다. 넷째, 상징 자본은 명망이나 평판과 같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지위 개념과 유사하다.

(2) 아비투스(habitus, 습관)

-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같이 학습된 기질을 말한다. 이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위 및 특성을 연결**해 준다.
-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 자본으로서 유사한 **취향**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아비투스**에 의해 형성된다. [2018-A-5]
- **취향**은 아비투스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하위 개념이다. 취향은 개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계급지위에 맞게 변화한다.

(3) 장(field)

- 경쟁적 투쟁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무대로, 각각 고유한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본이 다를 수 있다.

(4) 학교

- **학교**는 문화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핵심적 기관**이다. → 불평등을 학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개인의 사회 이동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2007-24]
- 학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가치, 태도에 입각한 교육내용과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상류계급과 중간계급의 자녀들이 더 잘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
- 예술적 취향과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부모는 자녀교육에서 학업성취 지향적인 성향이나 전인교육 지향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이것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지속되면서 개인들은 부모의 사회계급과 유사한 계급 위치로 배치된다. [2011-1차-31]
- 상.상 입장의 비판: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 학교 내 다양한 상호작용 간과

4) 사회이동

가)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 수평이동
- 수직이동 [공사 2003-16]

나) 이동기간에 따른 구분

- 세대 간 이동
- 세대 내 이동

다) 이동원인에 따른 구분

- 개인적 이동
- 구조적 이동 [공사 2003-16] [2011-2차-1]: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세대 간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지위의 측면에서 그들 부모와 매우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다. [2011-2차-1]
- 교환이동: 구조적 이동과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구조나 직업구조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순수하게 계층적 지위가 서로 바뀌게 되는 이동을 말한다. 사회이동의 총량에서 구조적 이동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교환이동이다.

5) 계층구조

가) 계층 구성원의 이동가능성과 조건에 따른 구분 [2011-2차-1]

- 폐쇄적 계층구조 [2011-2차-1]
- 개방적 계층구조 [2011-2차-1]

나)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상대적으로 불안정
-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중간층이 완충작용을 하여 안정적

사.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소득 보장 제도
- 강제가입 [1992-6]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적 형평성보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1992-6] → 공공부조에 비해서 약함
- 근로의욕 증진, 실업 등에 대한 불안 해소 [1992-6]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1992-6] +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2) 공공 부조

-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
- 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며, 선별해서 주기에 효율성은 높지만 낙인효과 위험이 있음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1992-6]

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2005-19]

- 정부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한다. [2005-19]
-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5-19]

3) 생산적 복지(workfare)

-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 [2005-19]
-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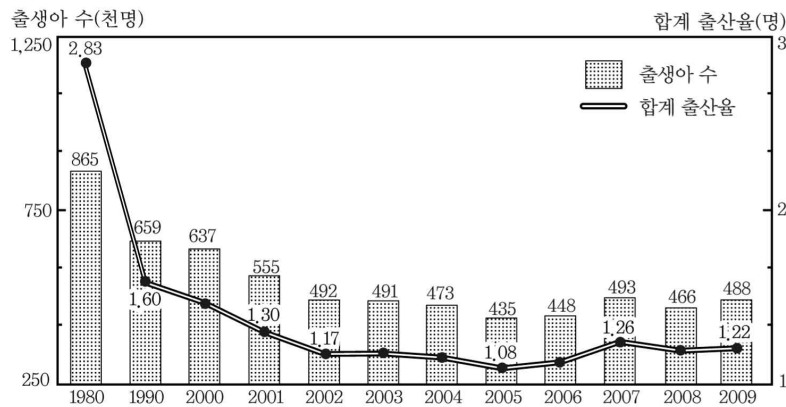
4) 저출산, 고령화 [2004-10] [2007-22] [2010-2차-2]

-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재정 파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 노인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04-14] [20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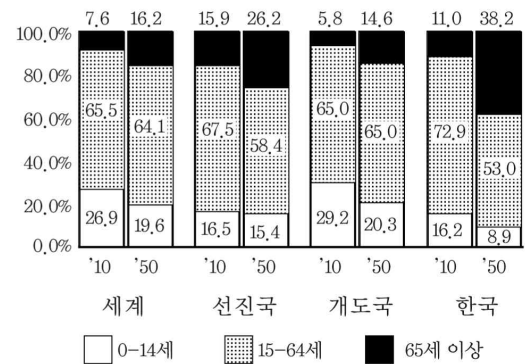
[2010-2차-2]

(가)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과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인구구조 변화 비교(2010년, 2050년)



자료: 통계청

(나) 과거와 달리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녀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족은 가족의 물질,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자녀들의 성공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 가족에서 육아와 교육 영역에서 '소자녀'는 가족의 생존 방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촌의 많은 남성들은 가족을 구성할 물질,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점점 적어져 우리나라 여성을 배우자로 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 인간의 노화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파악하려면 누가 '노인'으로 규정되고 있고, 노화와 관련된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그 사회가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노인들을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함께, 노인들 스스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 시민사회

1) G. Hegel

- 시민사회를 국가에 앞서 존재하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보았고, 가족공동체에서 분화된 개인들이 시민사회에서 사적 이익과 특수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며 공동체의 인륜성이 훼손된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 속에서 규제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6-32]

2) K. Marx

3) 자유주의

4) 신토크빌주의

-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사람들을 규범적으로 통합시킨다.
- but 불평등과 같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

5) A. Gramsci

- 사회를 국가, 시민사회, 경제적 토대의 삼분모델로 파악했는데, 국가가 군대나 경찰 등 강제력을 통한 지배기구라면 시민사회는 피지배계급의 동의나 **헤게모니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진다.
- 이러한 동의에 바탕을 둔 **헤게모니적 지배**는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지배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고, 국가권력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동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강제력으로 무장한 헤게모니**로 파악했다.
- 따라서 국가에 대한 동의를 해체하고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헤게모니 투쟁 과정에서 특정계급의 형성 및 발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 **헤게모니**: 지배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도력. [1996-32]

6) 공론장과 체계-생활세계 이론 (J. Habermas)

가) 공론장의 구조변동

- 18세기 말경 부르주아계급의 형성을 통해 봉건사회 내에서 부르주아 공론이 형성되었다.
- 17~18세기 살롱이나 클럽에서 시작된 '문예적 공론장'은 신문 및 인쇄물의 보급과 특히 부르주아혁명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했고, 여기서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6-32] [2009-1차-29]
- 이러한 공론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여 봉건적 지배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매개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부르주아혁명을 거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 하지만 의회는 국가기관화되고 전문적 기술관료들에 의해 지배되면서 점차 자유로운 토론적 의지 형성의 역할수행이 어려워졌다.
- 특히나 새롭게 등장한 공론장인 대중매체는 비판적 공중의 형성을 제약하여 공론장은 쇠퇴하여 '정치적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불러왔다. [2009-1차-29]

나) 공론장의 역할

-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지배를 견제하는 중요한 매개적 공간 [2006-23]
-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줄 공론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996-32] [2023-A-7]
- 체계는 목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반면, 생활세계는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 움직인다. [2006-23]
- 그런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를 매체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권력을 매체로 하는 관료적 복지국가의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에 침투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억압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나타나게 되어, 생활세계는 체계 논리에 의한 지배의 대상이 되어 화폐와 권력 추구의 장이 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인하여 문화적 의미 상실, 사회적 규범의 정당성 훼손, 개인의 인격성 파괴 등을 극복하기 어렵게 되므로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2006-23] [2009-1차-29] [2025-A-3]
- 국가권력과 화폐논리에 의한 식민화로부터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운동과 공론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2006-23] [2009-1차-29]
- 따라서 환경 운동, 여성 운동, 생활공동체 운동 등 신사회 운동을 통해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2009-1차-29] → 체계 자체의 변화를 주장한 것이 아님

[2009-1차-29]

하버마스는 마르크스가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환원한 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노동과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에 그는 노동을 목적 합리적 행위,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면서, 두 가지 행위 유형을 근대의 합리성 문제와 연결하였다. 마르크스나 베버가 생산력의 증대와 생활에 대한 기술관료적 통제의 증가 등 목적 합리성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는 목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불균형적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왜곡되고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을 근대성의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의사소통 합리성의 회복을 사회 진화의 종착점으로 간주하였다.

[2025-A-3]

비판사회이론가 하버마스(J.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시대진단 테제를 제시하였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주체들 사이의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유지되는 생활세계가 (㉠)을/를 매체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을/를 매체로 하는 관료적 복지국가의 체계 논리에 의해 침투당하고 물화(物化)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 경제와 국가행정의 논리가 침투하여, 인간관계가 탈인격화되고 마치 사물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그 결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문화적 의미 상실, 사회적 규범의 정당성 훼손, 개인의 인격성 파괴 등이 나타난다.

자. 사회운동

1) 집합행동

- 집합행동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기존의 규칙을 거부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집단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형성된 일시적 집합행동에서 조직된 장기적 집합행동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군중행동은 전자에 가깝고, 사회운동은 후자에 가깝다. 이러한 군중행동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보이며, 뚜렷한 목표의식이 약하고 집합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폭동.
- 조금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지속적 형태로 생겨나는 것을 사회운동이라고 한다.

2) 유형

- 개혁적, 혁명적, 복고적

3) 사회심리학적 이론: 군중심리 이론 (G. Le Bon)

- 집합행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흥분의 전염, 비합리성이 사회운동의 발생 원인이다. [2012-1차-29]
- 익명성, 전염, 피암시성의 세 가지 기제를 통해서 개인들은 자기통제력을 잃어버린다.

4) 사회심리학적 이론: H. Blumer

5) 사회심리학적 이론: J-곡선 이론 (J. C. Davis)

- 체계 긴장에서 초래된 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불안감에 의하여 사회운동이 발생한다. [2012-1차-29]
- 혁명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갑자기 둔화할 때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6) 합리적 선택 이론 (M. Olson)

- 개별 행위자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이해라는 합리적 동기와 의도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 환경, 인권 등과 같이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 집단의 경우, 개인에게 자발적 참여와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이 약하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2022-A-7] → 개인적 합리성과 집합적 합리성 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합행동이 발생하기 어렵다.

7) 부가가치 이론 (N. Smelser)

- 사회운동의 발생에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2023-B-1]
-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은 명확한 단계를 가진 과정을 통해 출현하고, 각각에 연속적 과정이 **추가**되면서 발전하게 된다. 사회운동이 발전하려면 6가지 요소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6가지로 '구조적 유인성, 구조적 긴장, 일반화된 신념의 전파, 촉발 요인, 행동을 위한 **동원**, 사회통제 기제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스멜서의 이론은 이러한 **부가가치** 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의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려고 시도했으나 사회운동의 조직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3-B-1]

8) 자원동원 이론 [2023-B-1]

- 갈등론적 관점에서 비롯되었고, 사회운동을 억압적인 기존 질서에 대한 합목적적 도전으로 이해했다. [2012-1차-29]
- 사회운동을 사회 병리 현상이라기보다 **사회집단의 이익추구 현상**으로 본다. [2012-1차-29] → 사회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합리적인 손익계산과 선택을 하게 된다.
- 사회운동의 발생 요인으로 사회 운동에 필요한 자원을 강조한다. **사회운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해야만 가능하다.** 사회운동 단체는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 홍보, 사업 확장을 모색한다. [2012-1차-29] → 사회운동의 초점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으로 전환
- 사회운동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익집단들이 이익이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자신들이 가진 **인적.재정적.물적.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합리적 행위로 본다. 또한 이러한 행위능력의 정도와 **자원동원의 조직화 수준**, 정치적 전략 등을 사회운동 분석의 중심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2023-B-1]
- 의의: 사회운동의 합리성 강조, 능동성 강조
- 한계: 불만 경시, 대중을 무기력한 존재로 보고 엘리트 필요성을 일반화

9) 신사회운동 [2022-B-10]

- 서구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운동들은 산업사회의 출현과 함께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회운동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운동**이었다.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운동은 자본 대 노동 간의 계급적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1-1차-32] [2022-B-10]
- 그러나 복지국가의 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나 계급, 노동, 분배 등의 문제로 인한 대립은 완화되었다. 반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탈물질적·탈계급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병폐, 시민적 자율성 침해, 권위주의적 지배, 삶의 질과 대안적 삶의 추구, 다양성과 정체성의 인정, 환경문제, 반전-평화문제, 지역사회문제, 여성문제, 소수자문제, 다문화사회의 문제, 그리고 권력 집중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갈등의 쟁점이 노동-생산의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재생산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들이다. [2011-1차-32] [2022-B-10]
- 일국적 관점을 넘어 세계화되어가고 있다. [2011-1차-32]
- **이전의 사회운동에서는 노동계급이 운동의 주체였지만, 신사회운동에서는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 시민사회조직, 제3섹터 등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계급을 초월한다.** [2011-1차-32] [2022-B-10]
- 사회운동의 성공요인으로 **참여자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중시한다. [2012-1차-29] → 자원동원 이론은 자원이 중요

차. 대중문화

1)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중문화 비판

- 대중문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대량문화로 이해했다.
- **대중 기만적 계몽**으로서의 문화산업이 체제비판적 의식을 약화시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일차원적 사고에 **매몰되게 한다.** [2006-22]
- **사회적 시멘트 효과:** 대중문화가 발달할수록 노동자계급은 일시적 쾌락에 길들여 정치적 사건에 무관심해지고 **체제비판적 의식이 약화**된다. 그 결과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환상적 현실 속에 도피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2006-22]

2)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중문화 수용 (Benjamin)

-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위계와 경계를 무너트려 문화의 평등과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다양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

3. 사회변동과 사회발전

가. 사회변동론: 기능론과 갈등론

나. 사회변동론: 진화론과 순환론 [공사 2005-22]

1) 진화론

- 단선진화론: Comte, Spencer, Tönnies, Durkheim... → 앞에서 정리
- 다선진화론: Steward, Sahlins & Service → 문화에 정리

2) 엘리트 순환론 (Pareto) [공사 2005-22] → 정치학에 정리

3) 주기적 순환론 (Sorokin) [공사 2005-22]

- 인류의 문명은 크게 감각적 문화, 관념적 문화, 이상적 문화라는 세 가지 유형의 사회문화체계로 나타난다. 인류 문명은 이 세 문화 중에서 주로 감각적 문화와 관념적 문화 간의 변화에 의해 유지된다. 그런데 문화가 어느 정도 변동하게 되면 그 이상 변동할 수 없어 오히려 쇠퇴하게 되며, 이를 극한의 원리라고 한다.
- 감각적 문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를 강조(감성)
- 관념적 문화: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를 지향(이성)
- 이상적 문화: 감각적 문화와 관념적 문화가 어우러져 균형(결합)

4) 순환론의 문제점 [공사 2005-22]

- 과거 사회의 변동에 대하여 사후적인 분석을 하는 데 그쳐 미래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 운명론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한 사회변동을 간과하며
- 현재의 사회나 단기적인 국면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 글로벌 불평등: 근대화론,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1) 근대화론: 경제발전 5단계 이론 [2012-1차-33] (W. Rostow)

- 후진국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기술, 저축과 생산적 투자, 노동윤리 등 현대적인 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수용할 때 선진국처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12-1차-33] [2016-B-4]

가) 5단계

- 모든 사회는 애초에는 전통 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중 일부는 전통 상태에서 벗어나 근대 사회로 이행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러한 이행과정은 아래 5단계로 나뉜다. [2012-1차-33] [2016-B-4]
- 전통적 단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
- 이륙 준비 단계: 합리적 기업가와 현대국가가 출현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형성**
- 이륙 단계: 기술개발과 **공업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
- 성숙 단계: 산업 다양화와 실질임금이 상승하며 **신중단계급** 형성
-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 내구성소비재와 서비스의 대량생산

나) 사회발전

- 사회학적인 면에서 근대화란 귀속성에서 업적성으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집합지향에서 개인지향 등으로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2-1차-33]

다) 비판

- 현대성이 보편적인지에 대한 의문, 즉 서구화가 현대화인지
- 전통과 현대는 항상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지에 대한 의문
-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2012-1차-33] [2016-B-4] → 따라서 현대화가 단선적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 종속이론/세계체제론 관점: 현대화론은 국민국가들 간의 교류관계에서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 [2014-A-기입10] [2016-B-4]

2) 종속이론

- 선진국의 근대화는 후진국의 **저발전**에 의존한다고 본다. [2012-1차-33] → 미발전 X
- 저발전 국가의 빈곤은 부유한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의 수탈에 의해 발생한다. [2014-A-기입10] [2016-B-4]
-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불평등한 교환이 지속되는 한 약소국은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 주체적 발전 필요

가) 한계

- 일부 저소득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을 설명하지 못함

나) Cardoso & Evans 종속적 발전론

- 외국 자본 - 국가 - 국내 자본의 3자 연합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종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 외부적 요인 못지않게 내부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적 요인에 대한 내부적 대응방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3) 세계체제이론 (Wallerstein) [2012-1차-33]

- 세계는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로 나뉘어 있으며,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불균등한 교환관계로 규정하고, 중심부인 서구의 번영은 주변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2007-12] [2009-1차-15] [2014-A-기입10]
-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지속되는 한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2009-1차-15]
- 다만 특정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제3세계 **일부 국가들(반주변부)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2014-A-기입10]

가) 3개의 경제지대(국가군)

- 중심부: 선진화된 국가로서 세계경제체제에서 생산된 이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주변부: 주로 농업 등 1차 상품을 생산하며 저임금 국가로서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조종되고 관리된다.
- 반주변부: 중심부와 주변부를 중심부와 주변부를 매개하며 중심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변부를 착취한다. 주변부에 경제발전의 전망을 제공하며 **세계체제의 양극화를 억제하는 안정화 역할**을 한다.

라. 정보사회

1) 탈산업사회 (D. Bell)

2) 제3의 물결 (A. Toffler) [1999추가-10]

3) 정보자본주의 (H. Schiller)

- 정보사회도 자본주의시대의 연속이다.

4) 접근의 시대 (J. Rifkin)

- 소유보다는 접근권.이용권을 활용하는 시대로 이행한다.

4. 문화인류학

가. 문화의 의미와 구성요소

1) 의미: 총체론적 관점

- 문화는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 [2009-1차-31] (Tylor) →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된 것이다. [2009-1차-31]
- 상징이 문화의 기초가 된다. (White)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활모습, 인간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가 문화라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2009-1차-31] [2013-1차-33]
- 적응 메커니즘으로서의 문화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의미: 관념론적 관점

-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동 그 자체가 문화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위한 또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가 곧 문화다. [2009-1차-31] [2013-1차-33] →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흡수하는 핵심 가치의 표현이다. [2013-1차-33]
- 문화는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모델이며, 이것에 의해 사람들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2009-1차-31]

[2013-1차-33]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는 우리의 감각이 작용하는 방식과 인간의 두뇌가 그것에 입력된 자극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모든 종류의 가공품과 같은 인위적 사물을 만들거나 의례를 고안하거나 과거의 역사를 쓸 때,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을 모방한다. 자연적 산물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산물들도 분류하고 정리한다. 문화 연구에서는 언어 및 이와 유사한 의사소통 형태들인 친족, 교환, 예술, 의례, 신화와 같은 문화의 특정 측면들의 근저에 있는 **인간 심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분석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구성요소: 물질문화, 비물질문화(관념문화, 제도문화)

나. 문화 연구 관점: 총체론, 상대론, 비교론

1) 총체론적 관점

2) 상대론적 관점 → 문화상대주의에

3) 비교론적 관점

- 사회문화적 양상 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여 인간사회와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일반화를 하려는 관점이다.
- 사람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해결에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 문화상대성과 상호이해에 공헌한다.

다. 문화의 속성 [1993-2] [1994-23] [1995-27] [1995-28]

[2001-14] [2004-11] [2010-1차-35]

1) 학습성 [2005-2]

-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 양식으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된다.

[1994-23]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는 유전인자보다는 그가 어떤 문화 속에서 생활했는가에 달려있다.

2) 축적성 [2001-14] [2005-2]

- 문화는 전승되면서 점점 더 풍부해져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2001-14]

[2001-14]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치이다. 그런데 김치의 역사를 보면,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춧가루로 버무린 빨간 김치는 임진왜란 후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대성 작물인 고추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김치는 소금에 절인 짠지에 가까웠다.

3) 공유성 [2005-2]

- 문화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으로,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2010-1차-35]

말레이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말레이의 거부감은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취향이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모슬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징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4) 변동성 [2005-2]

-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한다.

5) 전체성 [2004-11] [2005-2]

-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은 하나의 전체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한다.

[1993-2] [1995-27]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핵가족화·가치관 변화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4-11]

(나) 인도 카스트 제도의 존속은 윤회를 믿는 인도의 힌두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전생에 자기가 속한 카스트에 대한 예의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더 친한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계급 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다) 수렵 채집 사회는 가족 규모가 작았다. 이런 현상은 먹이를 쫓아다니는 계절적 이동 생활에서 연유한다. 이동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규모가 작아야 하고 소유물도 많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문화 이해의 태도: 상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의

1) 자문화 중심주의 [1993-1] [1998-9] [2010-1차-35] [2023-A-10] [2025-A-10]

- 자기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2023-A-10] →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음 [2023-A-10]

※ 단절 [2025-A-10]

- 국수주의(자국이 타국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문화를 배척)와 문화 제국주의(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려고 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종교적 선교, 식민지배, 외국인에 대한 폭력, 인종 청소, 침략 등 문화적 마찰 가능성 높음 [2012-1차-30] [2023-A-10]

-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

-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1998-9]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는 서로 다르다. 의·식·주, 가족 관계, 종교와 제례 등은 한국적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서양문화를 모방하려는 것은 주체성을 상실한 잘못된 태도이다.

[2010-1차-35]

말레이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 집단인 화인은 돼지고기를 무척 선호하는 종족이다. 말레이어로 돼지를 뜻하는 ‘바비’는 가장 심한 욕으로 사용되는데 화인(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2-1차-30]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민족이나 사회의 문화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모건(L. Morgan)의 경우 서구의 일부일체제, 유일신, 발달된 사회 조직이라는 기준에 따라 야만, 미개, 문명을 구분하였다. 그는 진정한 ‘문화’는 서구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먹는 아시아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을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2012-1차-30]

○○○는 서양과 다른 자기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서구의 가치는 문화가 전혀 다른 자기 민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는 보편적 기준에서 자기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를 거부하고, 권위주의적 체제를 수립하여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

[2023-A-10]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생활양식을 유일한 문화라 여기고 다른 유형의 생활양식은 낯설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한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선교나 식민 지배 등 타문화를 변화시키려 했던 행위로 이어져 인류 사회에 끊임없는 분쟁을 불러왔다.

[2025-A-10]

문화인류학자 모건(L. Morgan)은 『고대사회(Ancient Society)』에서 인류의 발전 단계를 야만·미개·문명 단계로 구분하고 서구사회를 문명사회로 규정하였다. 문화를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비서양사회를 계몽하고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와 신부를 앞세워 침략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을 오랑캐라고 멸시한 것에서도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2) 문화 사대주의 [1993-1] [1998-9] [2025-A-10]

- 다른 문화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

※ 단절 [2025-A-10]

-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
-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1998-9]

세계화 시대에는, 의·식·주와 가족관계, 그리고 종교와 제례(祭禮) 등에서 한국적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서부 유럽 사회의 우월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2025-A-10]

그것은 우리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난다. 예컨대 업무나 사업을 ‘프로젝트’라고 하거나 발표나 보고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런 표현이 더 멋지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태도가 깔려 있다.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의 명칭 부여는 물론이고, 오래된 아파트의 우리말 명칭을 외국어 명칭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 상대론적 관점(문화 상대주의) [1995-28] [1998-9] [공사 2002-6]

[2023-A-10]

- 문화들 간 공통 가치와 문화 유형 및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2011-1차-29]
- 현지조사를 통해, 귀납적·경험주의적 방식으로 민족지적 자료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2011-1차-29]
- 모든 문화가 대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011-1차-29]
- 사회마다 그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고유문화를 갖고 있어 각각의 문화를 하나의 통합체로 간주한다. [2011-1차-29] [2023-A-10]
- 특정한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 및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평가한다. [1998-9]
- 문화를 평가할 때는 그 사회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그 장단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012-1차-30] →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되지 않으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문제

[1993-1]

아프리카 미개 사회의 문화도 서구 사회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1995-28]

-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쇠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아라비아의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은 것을 금한다.
- 유대인들은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을 가진 것만 먹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중에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먹지 않는 부족이 있다.
- 우리의 온돌은 우리에게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방식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6-33]

-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 인도 힌두교도들이 암소를 숭배하는 풍습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그 풍습을 어리석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사 2002-6]

세계화에 따라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문화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월드컵 개최국인 한국의 부신문화가 서구인들에 혐오감을 일으킨다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 문화만 우수하다고 고집하는 자 문화 중심주의와 무조건 선진국의 문화를 모방하려는 문화적 사대주의는 모두 경계해야 한다.

[2011-1차-29]

○ 우리가 문명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태어나 줄곧 이 문명이 시키는 대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정과 이성 간의 균형을 취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문명의 가치를, 그 문명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류학적 연구들은 지금 이상으로 우리가 다

른 사람들의 문화를 관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 우리 자신의 문화적 안경을 통해 남의 문화를 의식하고 분석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른 민족의 문화적 안경을 통해 그들의 전통과 경험의 맥락에서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

[2012-1차-30]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는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일부 서구인들이 자신들이 혐오하는 음식을 먹는 아시아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을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일은 인권 운동가들이 아프리카의 여성 할례 문화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2023-A-10]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를 타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특정한 문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4) 극단적 상대주의

- 문화상대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2012-1차-30]
- 문화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인정할 수 있음 [2023-A-10]
-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 [2012-1차-30]

[2012-1차-30]

○○○는 서양과 다른 자기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서구의 가치는 문화가 전혀 다른 자기 민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는 보편적 기준에서 자기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를 거부하고, 권위주의적 체제를 수립하여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

마. 현지조사와 민족지

1) 현지조사 [2019-A-6]

- 사회적 상황 속에 들어가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위자들과 함께 살면서 참여관찰, 비구조화된 면접, 생애사 수집, 지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 [2019-A-6]
-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
- 친밀관계(rapport)를 잘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대표성(외적 타당도)과 신뢰도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민족지 [2020-B-9]

- 현지 문화의 여러 측면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민족지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문화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2020-B-9]
- 또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한 문화에 대해 기술하는 작업 그 자체나 글로 써놓은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2020-B-9]

바. 주류문화, 하위문화

1) 주류문화(지배문화)

- 사회의 주요 신념 체계로, 그 사회의 유일한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문화로 간주되기도 한다. [2009-2차-A-2] [2014-A-기입11]

2) 하위문화 [2010-1차-35]

- 주류문화나 지배문화와 구분되는 가치와 규범을 가진 사회집단들의 문화. [2009-2차-A-2] [2014-A-기입11]

[2010-1차-35]

다종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가 국어로, 말레이의 종교인 이슬람이 국교로 채택되어 모슬렘 토착민 집단인 말레이의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가 인정되고 있다.

말레이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 집단인 화인은 돼지고기를 무척 선호하는 종족이다.

고급 화인 요리점이 중국 지방 요리의 전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가) 유형

- 지역문화: 다양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으로, 다양성을 지닌다.
- 세대문화 & 청소년 문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
- 반문화 [2014-A-기입11]: 주류문화나 지배문화의 근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1960년대 미국 및 서구 사회에 나타났던 히피문화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2014-A-기입11]

사. 문화의 세계화

1) 의미

-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개인의 생활 영역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현상
-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전파가 빈번해지고 다문화 사회의 성격을 갖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 사회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질적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의 성격을 갖게 됨
- 인류 보편적 가치가 확산하는 한편, 문화의 획일화라는 부작용도 있음.

[2003-16]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지구촌이 단일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과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2) 문제점: **문화제국주의(문화패권주의)** [2003-16] [2006-24] [2025-A-10]

- 선진국 문화의 유입으로 문화 식민지화, 문화 동화로 문화가 획일화됨 [2003-16] [2006-24] [2013-1차-31]
- 선진국 또는 강대국이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문화를 활용하고 있음 [2013-1차-31]

[2003-16]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 회의와 2000년 1월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 회의 때마다 전세계에서 몰려든 각종 비정부기구(NGO)들은 선진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시위는 갈수록 조직적이며 대규모화되는 추세이다.

[2013-1차-31]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전(全) 지구화는 사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문화 유입국들의 토착 문화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또는 강대국의 초국적 자본에 의해 가속화 되었다. 할리우드 영화가 모든 나라의 영화 산업을 지배한다든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세계인의 입맛을 바꿔 나간 것 등이 그 예이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는 미국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친구가 되었으며, 미국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서는 미국의 상품들이 팔려 나갔다. 무역 협상마다 미국은 시청각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으며, 미국이 제작한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장르의 콘텐츠는 세계 시장을 휩쓸어 왔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 문화의 지배가 심화되어 왔고, 이제 미국 문화는 낯선 타국의 문화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익숙한 글로벌한 문화가 되었다.

[2025-A-10]

한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맞물려 자본의 예속에 따른 문화 예속현상을 의미하는 문화 제국주의를 더욱더 가속화한다. 선진국의 자본주의적 물질문화가 후진국에 유입되면서 후진국의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것이 문화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국적기업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

3) 바람직한 태도(세계화와 전통의 문제)

-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한 타 문화 이해 태도의 함양 [1999추가-11]
-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 [1999추가-11] [2001-14] [2006-24]
-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및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1999추가-11]

[1999추가-11]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화가 발전인 듯 착각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구 선진사회의 문화를 수입하고, 문화시장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지구촌 곳곳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등 문화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1-14]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 김치의 코덱스 인증 획득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코덱스 가공 과채류 분과회의(2000년 9월 25일)에서 재료·첨가물·산도·수분 함량 등 표준을 채택하면서 한국 주장을 대부분 반영, 김치 종주국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1) 원인: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가) 내재적 요인 [1999추가-11]

(1) 발견 [1999추가-11]

(2) 발명 [1999추가-11]

(가) 1차적 발명 [2012-1차-34] ex) 바퀴

(나) 2차적 발명 [2012-1차-34] ex) 바퀴를 이용한 수레

[2012-1차-34]

김치 냉장고는 2차적 발명에 의한 문화의 내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나) 외재적 요인(문화 전파) [1999추가-11] [공사 2002-17]

(1) 문화전파: 한 사회의 어떤 문화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해져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수용되는 현상 [2006-22]

(가) 직접전파: 문화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문화요소가 전달되어 수용됨 [1999추가-11]

(나) 간접전파 : 문화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수용되는 현상 [1999추가-11]

(다) 자극전파: 서로 다른 문화체계 간에 문화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새로운 문화요소의 등장을 자극하는 현상 [1993-3] [1999추가-11] [공사 2002-17] [2012-1차-34]

[1993-3] [공사 2002-17]

인디언인 체로키(Cherokee)족은 백인들과 접촉하면서 영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체로키 문자를 고안해 냈다.

[2012-1차-34]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다. 원래 칠성 신앙은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무속 신앙이며,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시는 전각이었다. 그런데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칠성각이 사찰의 일부가 되었다.

2) 문화변동의 양상

가) 변동요인의 소재에 따라

(1) 내재적 변동 [1992-9]

(2) 외재적 변동(문화접변) [2017-A-3]: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 요소들이 직접 접촉에 의해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2017-A-3]

[2017-A-3]

정복이나 식민지 통치, 큰 규모의 이주 등은 문화접변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나) 강제성에 따라

- 문화 접변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의도적 의사 결정과 선택의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 변동의 범위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7-A-3]

(1) 강제적 문화접변 [2012-1차-34]

[2012-1차-34]

남미 아마존강 유역의 자파테크(Japatek) 족은 나체로 살았다. 1940년대 이곳에 처음 도착한 가톨릭 신부들은 자파테크 족의 생활 양식을 무시하고 서구식 옷을 입혔다. 하지만 이 옷 때문에 자파테크 족은 피부병에 걸리고, 몸에 장식한 사회적 계층의 표시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2017-A-3]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고 나서 강제로 가톨릭을 믿게 한 결과 원주민들의 고유한 신앙이 해체되었다. 반대로 식민지 지배를 받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사회에서는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근본주의 종교 운동과 함께 전통 문화가 강화되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2) 자발적 문화접변

다) 변동 결과에 따라

(1) 문화동화 [2009-2차-A-2] [2013-1차-31]

[공사 2002-17]

일방적으로 식민지 문화가 지배자의 문화를 수용하여 지배자 문화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2009-2차-A-2]

어떤 입장에서는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여 이주민들이 이주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의 이민 1세대들 중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미국의 기존 문화 속에 녹아든 경우를 사례로 제시한다.

(2) 문화공존 [2009-2차-A-2]

[2009-2차-A-2]

다른 입장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한 종족 집단들이 서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꽃피운 사례로,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우를 든다. 안달루시아 문화가 발전했던 8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과 같은 비모슬렘 세력과 모슬렘 세력이 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슬렘은 모슬렘대로 비모슬렘은 비모슬렘대로 그들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향유하였다.

(3) 문화융합 [공사 2002-17] [2010-1차-35] [2012-1차-34] [2013-1차-31]

[공사 2002-17]

스페인 문화와 토착 인디언 문화가 접촉하여 그 어느 것도 아닌 제 3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2010-1차-35]

화인 음식에서는 화인·말레이·인도인의 음식 재료가 지역 집단과 종족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급 화인 요리점이 중국 지방 요리의 전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길거리 대중음식점은 현지 재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집단의 요리법을 채용하여 대중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냈다.

[2012-1차-34]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다. 원래 칠성 신앙은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무속 신앙이며,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시는 전각이었다. 그런데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칠성각이 사찰의 일부가 되었다.

라) 문화접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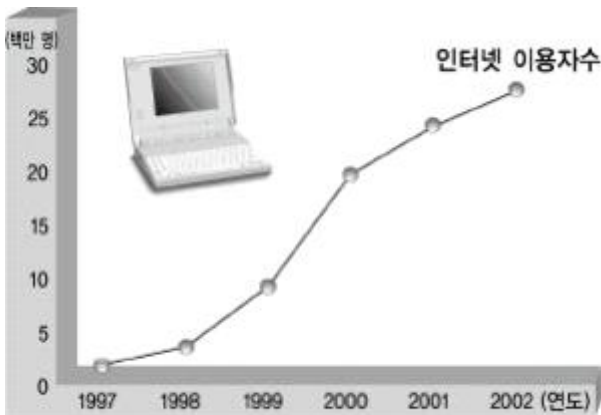
(1) 문화지체 [2005-17] / 기술지체

- 문화지체: 물질적인 영역의 변화는 앞서 가는데 비해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회변동에 따라 보편적 규범이 흔들리면서 개인들이 규범의 혼란을 겪는 아노미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회변동에 따라 사회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기능론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1995-29] [2005-17]

[1995-29]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사고율의 급증

[2005-17]



〈출처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3〉

- 전자 상거래의 폭증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채팅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통신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 기술지체: 정신문화에 비해 물질문화가 뒤떨어지는 현상

(3) 아노미 [1992-9]

(4) 문화 저항 / 반동 / 문화 복고 / 복고운동 [1992-9] [2017-A-3]

[2017-A-3]

식민지 지배를 받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사회에서는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근본주의 종교 운동과 함께 전통 문화가 강화되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자. 문화인류학 이론: 진화론 [2004-11], 특수주의, 전파주의

1) 단선진화론

- 인간은 **심리적으로 동일**하므로 모든 문화는 단선적, 보편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2018-A-11]
- 문화의 차이는 문화 발전의 속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발전 속도가 느린 민족의 현재 문화는 발전 속도가 빠른 민족의 과거 문화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018-A-11]
- 문화 이해의 기반을 객관적 합리성에서 찾는다. [2011-1차-29] → 경험적·귀납적 연구를 통해 인간 발전의 보편적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

가) E. B. Tylor

나) L. H. Morgan

- 모든 문화는 **야만시대-미개시대-문명시대**를 거쳐 진화한다고 보았다. [2025-A-10]
- 인류가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대륙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부족과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태의 발전 경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 인디언 부족들의 역사와 경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먼 조상들이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있을 때의 역사와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004-11] → **자문화중심주의** [2025-A-10]
- 혼인제도에 있어서 난혼상태부터 문명사회의 일부일체제까지 변화해왔음을 6단계로 개념화함.

[2025-A-10]

문화인류학자 모건(L. Morgan)은 『고대사회(Ancient Society)』에서 인류의 발전 단계를 야만·미개·문명 단계로 구분하고 서구사회를 문명사회로 규정하였다. 문화를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비서양사회를 계몽하고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와 신부를 앞세워 침략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을 오랑캐라고 멸시한 것에서도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2) 비판

- 서구의 문화를 가장 발전된 문화로 간주하고 비서구사회의 문화가 결국 서구사회의 문화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서구인의 자민족중심주의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 [2018-A-11]
- 물질·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제도·종교·윤리는 어떤 것이 발전된 것인지 평가하기 어렵다.
- 인간의 **심적 통일성을 전제로 입증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
- 문화의 다양한 요소 중 동일한 요소가 발견되면 동일한 진화단계로 파악하는데, 그 요소만 동일하고 다른 요소들은 다른 단계의 것인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3) 진화론 비판: 역사적 특수주의 (Boas) [2019-A-6]

-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문화진화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비판 중의 하나로 **문화적 변수들이 매우 복잡적으로 얽혀 있다**는 현상을 강조하고, 문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 내길 거부하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2019-A-6]
- 각 문화가 환경과의 관계나 이주경험, 인접한 타문화로부터의 차용 등 나름의 **고유한 역사가 쌓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각각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2019-A-6]
- 문화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며, 실증가능하고, 귀납적인 것이다. [2019-A-6] → **현지조사를 강조**하였고, 진화론이 실증적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을 비판했다.

4) 전파주의

- 문화중심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으로의 전파로 인하여 문화적 보편성이 나타났다.

가) 비판

- 동일한 요소도 지역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다를 수 있고
- 문화가 왜 문화중심에서만 발명, 발전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이 없고,
- 어떤 요소가 전파될 때 어떤 것이 거절되고 변형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5) 문화진화의 에너지 이론 (White)

가) 특징

- 사회 발달 단계는 기술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기술이 발달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이다. [2011-1차-34] → 환경변수보다 기술체계가 중요하며, 이념과 종교체계의 성격을 결정한다.
- 문화적 발전이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발명이나 혁신과 같은 문화 변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 요소는 개인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출현하고, 특성의 개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자체의 본성이고 문화의 독자적인 과정이다. [2011-1차-34] → 말리노프스키가 문화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나 것과 다르게 문화가 '종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 자연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의 향상과 생활 안정성의 증대를 문화적 발전으로 보았다. [2011-1차-34]
- 인간의 문화는 독특한 상징행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2011-1차-34]
- 문화의 보편적인 발전 단계를 가정하고, 기술과 환경의 관계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 [2011-1차-34]
- 문화변동의 구조적 유사점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 변동의 일반 법칙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1-1차-34]

나) 비판

- 에너지 양 증가가 반드시 진화인가?
- 환경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간과

6) 다선진화론 / 문화생태학 (Steward) [2011-1차-34]

가) 특징

-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적응을 하는 문화에서는 공통적인 규칙성이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적응 방법을 모색해 온 문화는 그 문화에 가장 적합한 변동의 길을 택한다. [2011-1차-34] → 문화변동의 구조적 유사점에 관심을 가졌으나,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공통된 문화변동의 규칙을 찾기보다 문화 변동 양상의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었다. [2011-1차-34]
- 사회의 적응과 발전에서 기술적 요소, 정치제도, 사회조직과 같은 사회문화체계의 핵심 영역(문화핵심)의 양상이 중요하며, 어떤 기술이 채택되는가는 사회문화체계의 형태(문화형태)에 달려있다. [2011-1차-34] → 즉 환경과 문화핵심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 관계 이외의 문화요소를 문화잔재라고 보았다.
- 사회문화체계의 핵심 영역의 양상이 유사한 문화들은 동일한 문화유형에 속하며 유사한 환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나타낸다. [2011-1차-34] → 환경의 차이가 다양한 발전경로를 가져오지만, 구조적 유사성에 의해 개별 문화를 범주화할 수도 있다.

7) 진화론 구분

가) Steward

- 19c는 단선진화론, 화이트는 보편진화론, 스투어드는 다선진화론으로 이름붙임.

나) 특수진화와 일반진화 (Sahlins & Service)

- 진화론을 특수진화와 일반진화로 재분류.
- 특수진화란 특정사회들의 문화사에 나타난 변동의 순서에 관심을 둔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그에 적응하는 사회의 변동과 적응양식에 관심을 둔다. 스투어드의 관점.
- 일반진화란 인류문화 전반의 진화에 관심을 두어 분석의 범위가 넓다.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문화 전반의 문화형태들에서 보이는 진화단계 순서의 보편적인 경향을 찾으려 한다.

차. 문화인류학 이론: 심리적 기능주의, 구조적 기능주의, 상징주의, 구조주의

의

1) 기능주의

- 문화를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체**로 이해한다. [2018-A-11]
- 제도, 역할, 규범과 같은 사회의 요소들은 일정한 목적을 지니며 **그 사회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010-1차-34]
- 현지조사를 중시하는 경험적 문화 해석의 태도를 취한다. [2018-A-11] [2010-1차-34]

2) 심리적 기능주의 (B. Malinowski)

가) 특징

- 욕구는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이 있으며, **문화는 이러한 욕구충족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기능을 갖는다. [2018-A-11] ↔ 래드클리프-브라운은 사회체계 통합(구조유지)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
- **일차적인 심리적·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를 **충족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치·사회등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차적인 욕구(체계유지)**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 **문화의 특징이 형성**된다. [2010-1차-34] [2018-A-11]
- 주술적 종교의례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교환관계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 특수주의(Boas)가 과거 연구에 한정된 점, 진화론이 미래 연구에 한정된 점을 비판하며 현재를 강조했다.

나) 비판

-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이론이 편향됨

다) 예시

- 남태평양에서 카누를 타고 섬을 서로 방문하면서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를 선물하는 의례적 교환 [2018-A-11] → 콜라 연구
- 항해에 앞서 행하는 주술은 항해 중에 다가올 위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으며, 카누를 이용한 항해는 전통적 기술을 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A-11]
- 주술은 적을 살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살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기를 쉽게 낳기 위해, 무희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어부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추수를 기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술은 하찮은 미신이나 공허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주술, 즉 주문과 의례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지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인간 행위의 국면에 항상 나타난다. [2010-1차-34]

3) 구조적 기능주의(사회적 기능주의) (A. R. Radcliffe-Brown)

[2020-A-10]

- **사람들의 행위는** 사회제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유형(사회구조)**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인식한다. [2009-1차-33] [2020-A-10]
- **행위는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2009-1차-33] → 말리노프스키는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

가) 비판

- 사회제도들이 구조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화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2009-1차-33]
- 모든 요소가 반드시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지 못했다.

나) 비판: 상징주의 (E. E. Evans-Pritchard)

- 문화의 기능보다는 사회에서 형성되고 소통되는 문화의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 [2009-1차-33]

- 문화현상을 상징체계의 표현으로 보는 이러한 인류학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파악하는 의미를 구분해야 하며, **하나의 요소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 친족

- 가장 기초적인 사회관계로서 씨족 조직과 같이 조상을 기점으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친족 조직에 주목하고, 혈통 계승의 사회적 규칙이 친족 조직을 강화하면서 안정된 사회 조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2020-A-10]
- ex) 어머니의 오빠와 누이동생의 아들(MB/ZS), 농담관계, 회피의 규칙....

[2009-1차-33]

세계 각지의 부계 사회 중 상당수는 외삼촌과 생질(누이의 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바송가(BaThonga) 부족의 경우 외삼촌이 일생 동안 생질을 돌보아야 하며 생질이 아프면 그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친다. 반면, 생질은 외삼촌에게 치근거리기도 된다. 예를 들어 생질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 몫으로 차려진 음식을 다 먹어도 되고 외삼촌이 자기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차려 놓은 술과 고기를 훔쳐 먹기도 한다. 외삼촌과 관련된 행동은 고모와의 관계와 대비된다. 외삼촌에게 버릇없이 구는 관습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모에 대한 특별한 존경 및 복종의 의무가 존재한다. 외삼촌과 고모에 대한 행위의 차이는 바송가 부족의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이러한 관습은 바송가 부족의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4) 구조주의 (C. Lévi-Strauss) [2016-A-5]

- 사람들의 인지구조, 즉 사람들이 주위 사물들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파악하여 문화를 해석하려고 했다.
- 예술, 종교적 의례 또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유형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는 인간의 심층 심리에 있는 구조(심층의식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여러 차원을 통과하는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문화현상을 결정짓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2016-A-5] [2020-A-10]
- **모든 민족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공통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자민족중심주의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2016-A-5] → 특정 사회의 실제적인 사회조직을 분석하기보다는 불가시적이고 때때로 **무의식적인** 조직 원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2020-A-10]
- **호혜성의 원리**: 인간의 의식구조는 **이분법적**이며, 양자 간에는 **호혜성에 입각한 교환**이란 것이 항상 일어난다. 따라서 **결혼**이란 것도 결국은 **두 집단 간에 여자를 주고받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2020-A-10] → 신화 속 요소들도 항상 대칭되는 요소들이 짝을 지어 나타나는데, 이는 심층의식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 선물의 역할을 분석한 Mauss의 증여 이론에 힘입어 친족 논의를 전개하였다. [2020-A-10]
- 이러한 시각은 가시적 차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부터 심층의 의식수준까지 인류학의 관심을 확대시켰다. [2020-A-10]

가) Radcliffe-Brown과의 “구조” 의미의 차이

- 레드클리프-브라운은 행위에 간섭하는 사회원리(사회구조), 레비-스트로스는 인간 심리의 구조(심층의식구조)를 의미한다.

나) 비판

- 문화의 다양성과 변동 외면

카. 혼인, 가족, 친족

1) 레비레이트혼과 소로레이트혼

- 레비레이트(levirate)혼: 형이 죽고 난 뒤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부부생활을 한다.
- 소로레이트(sororate)혼: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처제를 맞아들인다.
- 집단간의 결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2) 가족의 형태

- 핵가족: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형태 [2009-1차-32]
- 확대가족: 두 세대 이상의 결혼한 부부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
- 노동시장의 개인화(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기회가 늘어나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음)와 양성관계의 개인화(사랑, 결혼, 이혼 등을 주관적인 결정의 문제로 만듦)로 인해 핵가족도 점차 해체되고 있음. → 조절 가능한 섹슈얼리티(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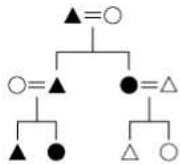
3) 친족

- 인류 사회는 친족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 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사회마다 다양한 관습법을 만들어 냈다. [2020-A-10]

가) 출계율 [2020-A-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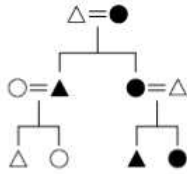
- 친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소속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20-A-10]
- 개인의 혈통을 따져 그 개인이 부모의 친족집단 중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020-A-10]
- 개인을 특정한 친족집단의 성원으로 소속시키는 방법에는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으로 정하거나 원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정하는 것이 있다. [2020-A-10]

(1) 부계율 [2020-A-10]



범 례	▲ 친족집단 성원인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인 여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여자
	= 부부관계	┌─┐ 형제·자매관계 부모·자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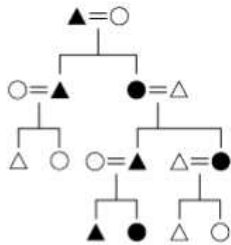
(2) 모계율 [2015-B-논술2] [2020-A-10]



범 례	▲ 친족집단 성원인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인 여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여자
	= 부부관계	┌ 형제·자매관계 부모·자녀관계

- 부계사회에서는 출계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족과 가족 일반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도 남편인데, 모계사회는 부인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2015-B-논술2]
- 모계사회에서도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지만,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실제로는 부인의 형제들 즉 아이들 입장에서 외삼촌이 권위를 행사한다. [2015-B-논술2]
- 즉 모계사회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의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모계집단과 구성원인 누이의 자식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다. 남성은 자신의 모계집단에서는 주인 노릇이지만, 자식들이 살고 있는 처가에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2015-B-논술2]
- 예시: 호피(Hopi) 인디언 [2015-B-논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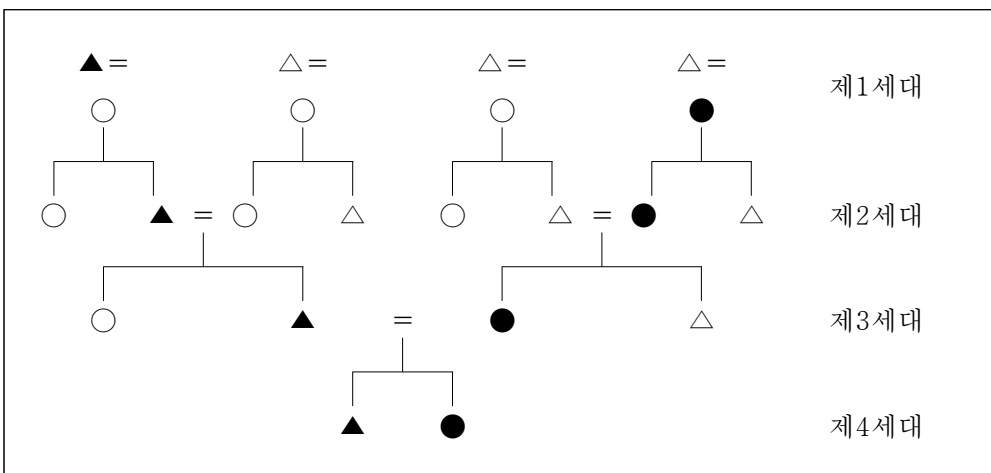
(3) 선계율 [2020-A-10]



범 례	▲ 친족집단 성원인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남자
	● 친족집단 성원인 여자	○ 친족집단 성원이 아닌 여자
	= 부부관계	┌ 형제·자매관계 부모·자녀관계

- 출계의 원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재산의 상속도 고정된 것이 아님.
- 예시: 사모아 섬 [2015-B-논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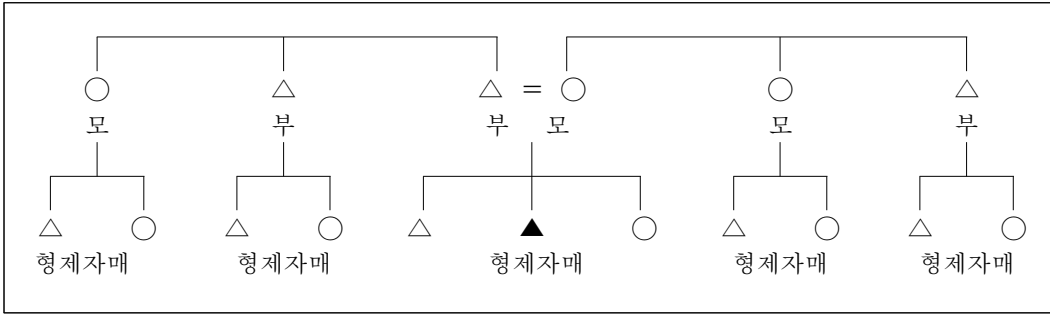
(4) 이중출계율



- 아버지 쪽으로는 부계, 어머니 쪽으로는 모계만을 인정한다.
- 가상적인 양계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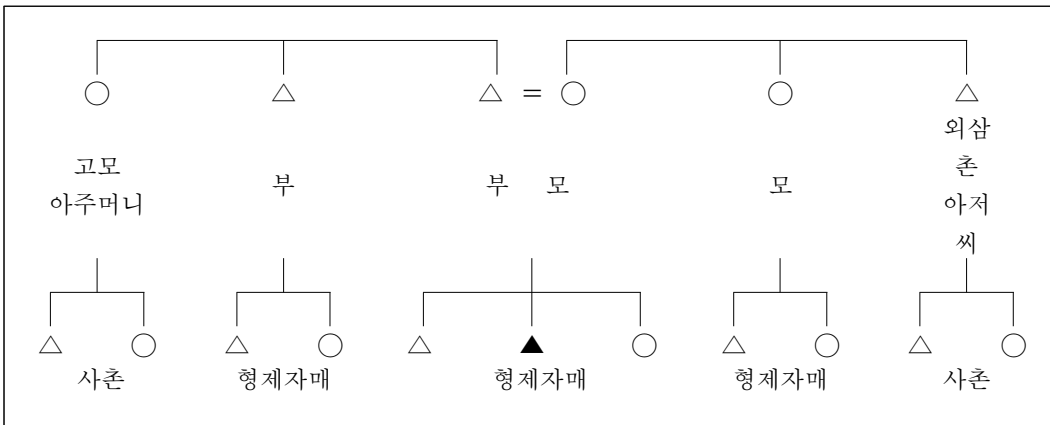
나) 친족용어

(1) 하와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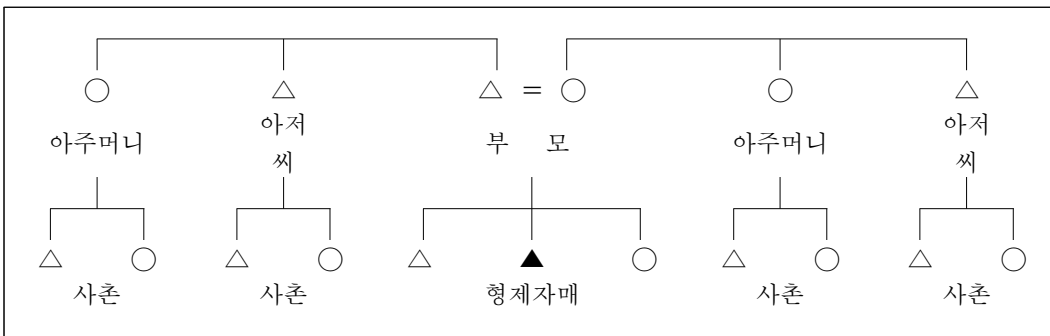
- 자기의 친족원들을 세대별로만 구분하여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각기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 선계율과 관련

(2) 이로꼬이형



- 아버지와 삼촌이 같은 용어로, 어머니와 이모가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 다만 고모와 외삼촌은 구분된다.
- 친사촌과 이종사촌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지만 교차사촌들에게는 구분되는 용어가 사용된다.

(3) 에스키모형



- 부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녀만 구분하여 아저씨, 아주머니로 부른다.
- 자기의 형제자매만을 구분하고 다른 사촌들은 모두 사촌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타. 종교

1) 진화론 입장

- Tylor: 애니미즘 같은 원시종교에서 다신교를 거쳐 일신교로 변화했다고 주장하였다. [2004-11]

2) Durkheim

- 집합의식의 사회적 기원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원시적 종교를 연구했다. [2012-1차-28]

- 종교는 사회성원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신념이며 관행이다. [1993-23]

- 공연장에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열광은 일종의 집합 의식이다. [2012-1차-28]

- 성스러운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중략)...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강력한 흥분제처럼 작용한다. 일단 개인들이 모이고 나면, 그 모임에 의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을 재빨리 열광시키는 일종의 전염이 생겨난다. 열광 상태에 도달하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외적인 힘에 의해 자신이 지배당하고 이끌리는 것을 느낀다. 그의 동료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울부짖음, 몸짓, 태도 등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격정적인 사회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걱정 자체로부터 종교적 관념이 생겨난다. [2009-1차-28]

3) L. Feuerbach

4) K. Marx

5) M. Weber

6) 종교운동 [2008-22]

-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문화적 반응이며 기존의 체계가 적응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문화변동의 중요한 예가 된다. [2008-22]

가) 천년왕국운동

- 인간의 모든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국가가 어떤 기적에 의하여 곧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의례들을 수행해야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출현되면 그 도래를 믿고 준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구제되는 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 애가 2008-22 정답일수도.....

나) 유령춤

- 이상화된 자기 고유의 과거 상태로의 복귀나 재현을 통한 현실세계의 극복

[2008-22]

19세기 후반 이후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해졌다. 백인들에게 삶이 지배당하고 들소가 급감하였으며 때마침 홍역이 유행하여 인구도 급감하였다. 이때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환상 중에 만난 예언자들이 나타나, 가죽 옷을 입고 춤을 추기만 하면 곧 백인들이 멸망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들소 떼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대평원 인디언들 사이에는 이 예언에 따라 유령춤이 급속히 번져나갔다.

다) 하물 의식(荷物儀式, cargo cult)

- 외부의 요소와 결합한 **보다 나은 미래**를 공유하려는 종교운동

-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면 이때까지는 원주민의 경제능력이나 기술로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지만 유럽인들에 의해서는 무진장으로 소유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이다.

[2008-22]

1870년대 이후 뉴기니의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조상에게 요청하면 백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다. 이들은 대나무로 활주와 부두를 만든 뒤 조상들이 엄청난 물질적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주술적 의례를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윤리나 행위규범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원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과. 기타

1) 페미니즘: 남성사냥꾼 가설 / 여성채집자 가설 [2007-25]

- 남성사냥꾼 가설은 남성들이 대규모 사냥을 통해 집단에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할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모든 인간다운 것들의 진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성적 공격성과 수동성, 생산자와 생식자, 음식 공급자와 의존자, 문명인과 자연인의 관계로 설정하는 데에 한몫해 왔다. 이 가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영장류 중 수컷이 훨씬 힘이 센 비비 원숭이의 사례를 증거로 선택했다. [2007-25]
- 그러나 태너와 질만 등의 여성 인류학자들은 대안적인 가설을 내세우면서 남성사냥꾼 가설이 진화를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채집자 가설은 초기 인류가 대규모의 집단 사냥을 했다거나 일대일의 짝결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시적인 수렵채집 사회에서 사냥보다 채집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하면서 남성사냥꾼 가설을 비판하였다. [2007-25]
-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여성채집자 가설은 인류의 진화과정에 있어서 남성우위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2007-25]

2) 문화와 인성: 베네딕트의 이상적 인성유형 [2021-B-10]

- 디오니소스형은 감정적, 즉흥적이며 아폴로형은 체계적, 이성적 [2021-B-10]

[2021-B-10]

문화인류학자 A에 의하면, 문화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화가 어떤 특질들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사회가 같은 문화 요소들을 지녔더라도 그것들 간의 배열이 다르다면 상이한 사회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화의 유형은 각 문화의 부분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적인 형식을 말한다.

A는 문화의 유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화는 확대된 인성이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캐나다 북서해안 지역의 콰키우틀(Kwakiutl)과 미국의 서남부 지역의 주니(Zuni) 원주민 사회의 인성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두 사회의 특징적인 인성이 서로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뚜렷한 차이가 나는 문화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사회의 문화 차이를, 니체(F. Nietzsche)가 그리스 신화를 분석하면서 상반된 인간상에 사용한 용어를 빌려 ㉠ 두 가지 형식의 문화로 설명하였다.

5. 사회조사방법론

가. 사회학의 연구방법: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1) 실증적 연구 [1993-9] [1998-8] [1999-10] / A. Comte [2006], E. Durkheim [2012-1차-27]

가) 기본입장(전제) [1999-10] [2006-25]

- 사회 현상 탐구는 뉴턴(I. Newton) 이전에는 철학의 영역에 속했다. 그러나 뉴턴 물리학의 영향으로 콩트(A. Comte) 이후에는 사회 현상의 연구도 실증과학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실증적 연구방법은 최근까지 영미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2006-25]
-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2012-1차-27]
- 실증주의 입장에서 해석적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다고 본다. [2020-B-9]
- 일반화와 법칙발견에 그 목적이 있다.

나) Durkheim

-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다.
- 사회 현상을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3-1차-29]

다) 장점

-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다. [2013-1차-34]
- 획득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 [2013-1차-34]
-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이해에 더 적합하다. [2013-1차-34]
- 대규모 집단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유용하다. [2013-1차-34]

라) 단점 [1995-14] [2013-2차-1]

- 인간 행동의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06-25]
- 사회문화 현상을 인간의 동기나 가치로부터 분리하여 연구한다.
- 사회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한다.
- 계량화가 어려운 연구에는 부적합하다.

마) 대표적 연구방법

- 질문지법
- 실험법
- 문헌 연구법

바) 실증적 연구의 일반적 절차

단계	내용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변수(개념)의 조작적 정의 [2019-B-7], 연구대상 선정, 자료수집방법/분석방법 결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사) 사회현상을 실증주의적으로 인식하기에 적절한 주제

[1998-8]

통화량과 소비자 물가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012-1차-27]

자연 과학의 대상이 사회 과학의 대상보다 더 규칙적이다. 하지만 사회 현상에도 고도의 규칙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한 사회의 출산율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다.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사회가 출산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 사회현상을 실증주의적으로 인식하기에 곤란한 주제

[1999-10]

- 수영복 차림으로 서있는 사람은 옷을 벗은 것인가, 입은 것인가?
- 이론(지식)은 연구(인식)의 결과인가, 연구의 수단인가?
- 역사는 사실적으로 규명되는 것인가, 해석과 재해석의 상승적인 순환인가?
- 진위(眞僞)의 판단은 사실의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가?

2) 해석적 연구 [1993-9] [1998-8] [1999-10] [2015-B-논술2] / M. Weber [2012-1차-27]

가) 기본입장(전제) [2006-25]

- 사회 현상에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본다. [2012-1차-27]
- 사회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경향에 통계학이 미친 영향과 기여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통계학적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그 방법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한계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계학적 방법은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사회현상에는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013-2차-1]
- **실재(reality)는 다중의 구성 실재**로서, 각 개인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현상에 대한 총체적 탐구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연구 반응자(대상자)들의 관점을 중시**하며, 연구 현장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독특한 삶의 의미를 읽어낸다. [2005-15] → 상호주관성이 중요함
-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는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하게 계획된 설계보다는 발현적 연구 설계(emergent design)를 지향한다. [2005-15]
-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 **감정이입적 이해와 독특한 통찰력**을 통해 해석과 판단을 내린다. [2005-15] → Weber 추 체험,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
-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나며,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자연 과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 Weber :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가치관련” 불가피하며,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치자유”적 태도 필요
- * Kuhn : 과학지식 발전은 “패러다임” 변화이며, 무엇이 과학인지는 “과학자 사회”의 규정에 따르면 될 뿐이다.

나) 장점 [2008-19]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설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2013-1차-34]
- 대화록, 편지, 일기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위자들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화하기 힘든 어려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다.

다) 단점 [1998-8] [2015-B-논술2] [2020-B-9]

-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높아, 객관적인 법칙의 발견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 행위자들의 주관적 관점만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다.

라) 대표적 연구방법 [2018-A-11]

- 참여 관찰법 [2009-1차-27]
- 면접법 [2009-1차-27]
- 문헌 연구법 [2009-1차-27]

마) 아래와 같은 관점/과제에는 해석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1998-8]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2008-19] 부시맨 문화를 장기간 참여관찰하던 리처드(Richard)는 크리스마스가 되자 감사의 표시로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사서 부시맨들에게 선물하였다. 은근히 선물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였으나 리처드에게 돌아온 것은 소를 잘못 골랐다는 비난뿐이었다. 리처드는 부시맨들이 좀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부시맨은 동료의 사냥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도 결코 칭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편없는 사냥을 하였다고 핀잔을 주었다. 이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한 사람의 교만은 마을의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리처드는 부시맨들이 어떻게 평등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2009-1차-27]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 여성들이 부쩍 늘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문화·다민족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타인종·타민족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주의가 요구되며, 그것의 출발점은 우리의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가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차별 기제로 작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일상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문화적 장벽과 소외를 느끼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2012-1차-27] 샤르트르 대성당은 돌과 유리로 지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돌과 유리 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과 유리의 일반 속성 이상의 것, 모든 건물에 공통된 것 이상의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곧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성당에 부여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역시 특정한 맥락에서 상호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결과다. 따라서 사회 현상이란 동기와 의미, 맥락을 고려해서 연구해야만 한다.
[2013-1차-34] 나의 관심은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분명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 관리자는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교통당국은 거리 표지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공원의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이상한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적인 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떠맡는 일은 일반적 사회 규범으로 보면 선한 행위이지만, 실제 발생한 상황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한 사람과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태도와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나. 자료 수집 방법: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1) 문헌 연구법 [2004-1]

-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11-1차-28]
- 기존 연구나 문헌, 통계 등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가) 1차 자료 / 2차 자료

- 1차 자료 : 연구자가 수행중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
- 2차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기존 자료).

나) 장점

-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도 이용할 수 있다.
-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다) 단점 [2004-1]

- 연구자의 편향(bias)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 [2011-1차-28]
- 문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구의 신뢰도가 같이 저하될 수 있다.
- 기존 자료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2004-1]

(가) '갑'은 장희빈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 모습에 관하여 연구할 목적으로 『조선왕조실록』 과 『인현성후덕행록』 을 조사하였다.

(나) '을'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학교 현장의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교육부 통계 자료』 를 조사하였다.

[2011-1차-28]

1. 연구주제 : 스마트 폰의 평가에 관한 신문 보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연구목적 : 스마트 폰의 평가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

3. 조사개요

- 분석대상 : 전국 4대 일간지의 기사에 나타난 스마트 폰의 평가에 대한 기사(사설 제외)

- 조사항목 : 스마트 폰의 디자인/스마트 폰의 수신기능/스마트 폰의 국내 브랜드 여부

4. 조사기간 : 2010. 9. 1~2020. 9. 30

2) 질문지법 [공사 2004-11] [2010-1차-29] [2019-B-7]

-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는 방법.

가) 장점 [2000-11]

-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며, 대량의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 면접/관찰과는 달리 익명으로 시행하면 솔직한 응답을 구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비교적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나) 단점 [공사 2004-11]

-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020-B-9]

- 회수율/응답율이 낮은 편이며,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이 있다.

- 문맹자에게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응답자가 문제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 폐쇄형 질문 작성의 유의점

- 포괄성: 선택지는 모든 부분을 포괄하여야 한다.

- 상호배제성: 선택지는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 [2000-11]

라) 질문지 작성의 원칙

- 간결성: 질문은 짧을수록 좋고 부연설명이나 단어의 중복사용은 피해야 한다.

- 명확성: 질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구성을 하고 모호한 질문은 피하여야 한다.

- 적절한 언어 사용: 응답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

- 단순성: 복합적인 질문은 피한다.

- 가치중립성: 응답의 선택 범주에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특정 대답을 암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편견이 들어간 질문은 피해야 한다. [2000-11]

- 규범적 응답의 억제

- 응답자의 자존심 보호: 응답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피해야 한다. [2000-11]

- 완전한 문장: 질문은 가급적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한다.

[2000-11]

(1) 귀하께서는 자동차의 기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① 매우 많이 안다. ___② 상당히 안다. ___③ 조금 안다.
___④ 보통이다. ___⑤ 잘 모른다. ___⑥ 거의 모른다.
___⑦ 전혀 모른다.

(2) 귀하께서는 신용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받으신 후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 ___① 생활비 ___② 문화비 ___③ 부채 상환
___④ 신용카드 대금 결제 ___⑤ 기타

(3) 우리 주변에 골프장을 많이 건설하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찬성한다. ___② 반대한다. ___③ 잘 모른다

마) 시행방법

(1) 우편조사 [2019-B-7]

- 질문지를 배포하여 반응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의 조사방법.

(가) 단점

- 적정선의 회수율 확보가 어렵다. 회수율이 낮으면 응답자의 대표성이 낮아져 조사결과에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촉서신을 보내는 등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경우 응답의 성실성이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2019-B-7]
- 응답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확인할 수 없다.
- 누가 응답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 독촉서신을 보낼 수 있다. [2019-B-7]
-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등 응답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 대상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동질집단의 경우 회수가 잘 된다.

(2) 온라인 사회조사

-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방식

(가) 장점

- 면접·전화·우편조사 등 전통적 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단점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집단특성이 편중되어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 유의점

- 기초적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
- 조사에 응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한다.

3) 실험법 [2021-A-10]

- 다른 조건들을 통제된 후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변인의 통제가 어려울 때 사용하기 어렵다. [2021-A-10]
- 비교적 잘 규정되어 있는 제한된 개념이나 명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보다는 설명이 목적일 때 적합하다. → 복잡한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어렵다. [2021-A-10]

가) 실험의 요소 [2016-A-13]

(1) 변수 : 독립변수(원인) / 종속변수(결과) [2010-1차-29] [2012-1차-32]
[2013-1차-28] [2021-A-10]

(가) 예시

-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성이 /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2010-1차-29]
-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출산 장려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2012-1차-32]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관적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 복지의 확대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2013-1차-28]
- 갑의 집 대문 주변에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가 쌓일 정도로 심각해졌다. CCTV를 설치해도 효과가 없었다. 갑은 사회과학 방법론 수업 시간에 배운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실험법을 아래와 같이 2주 동안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
1주 차 : 대문 주변을 청소한 후 그날부터 1주간 대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총량을 측정하고 CCTV 영상을 통해 쓰레기 투기자 수를 파악하였다.
2주 차 : 대문 주변을 청소하고 CCTV를 통해 24시간 녹화하고 있다는 경고문을 써서 대문 옆에 부착한 후 그날부터 1주간 대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총량을 측정하고 CCTV 영상을 통해 쓰레기 투기자 수를 파악하였다.
갑은 1주 차와 2주 차에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21-A-10]
- 연구자 A와 B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 A는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행복감은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외생 변수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계층을 설정하였다. [2022-B-9]
- 담임교사 을과 병은 각각 수업을 마친 후, 칠판에 '약속 지키기'라고 쓰고 자기 학급 학생(각각 20명) 모두에게 5,000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는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은 '내일 학교에 올 때, 나눠 준 봉투에 1,000원 짜리 지폐 4장,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5개로 바꾸어 담아 오고 다른 돈은 가져오지 않기'라고 알려 주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킨 학생들에게 그 돈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두 학급 학생들은 모두 약속을 지켰고, 그 돈은 학생들의 용돈이 되었다. 을은 '독거노인의 겨울나기'라는 10분짜리 동영상을 자기 학급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나서 교탁 위에 성금함을 올려놓은 후 "우리 학교에서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으니 성금을 낼 사람은 교탁 위에 있는 성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쓰고 성금함에 성금을 넣은 후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곧장 교실에서 나갔다. 같은 시각 병은 자기 학급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교탁 위에 성금함을 올려놓은 후 "우리 학교에서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으니 성금을 낼 사람은 교탁 위에 있는 성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쓰고 성금함에 성금을 넣은 후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곧장 교실에서 나갔다.

(나) 기타: 검정요인

- 외생변수 [2022-B-9]: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없는데 우연히 다른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외생변수를 통제하면 허위관계가 사라진다.
- 억제변수: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약화하거나 은폐하는 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 선행변수: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수일 수 있다.
- 구성변수: 독립변수에 속하는 하위개념
- 왜곡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로 해석하도록 하는 변수.

(2) 실험집단(처치) / 통제집단(처치X) [2016-A-13]

(가) 실험집단/통제집단이 설정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 [2016-A-13]

- 가설 검증과 일반화가 어렵다.

(3) 사전검사(실험 전 종속변수 측정) / 사후검사(실험 후 종속변수 측정) [2018-B-4]

- 사전검사가 없어도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려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최대한 동질화시켜야 한다. [2018-B-4]

(4) 조작적 정의 [2010-1차-29] [2012-1차-32] [2013-1차-28] [2019-B-7]

- 단순히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2013-1차-28]

[2013-1차-28]

(나) 주요 변수 개념 정의

- 주관적 계층 지위 :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복지 태도 : 복지의 확대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바) 주요 변수 측정 문항

- 주관적 계층 지위 : 한국 사회를 10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 태도 : 귀하는 정부가 공공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2019-B-7]

- 1) 행복감 : 주관적 행복감을 5점 척도로 구성된 10개 문항으로 측정
- 2) 인간관계 만족도 : 학교장과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으로 측정

[2025-B-7]

갑과 을은 음식물 섭취와 두뇌 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영양 섭취가 두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정 영양소가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음식의 섭취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갑과 을은 음식물의 섭취가 ㉠인간의 두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갑은 K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해당 교육청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갑은 신학기가 시작되자 2학년 학생들에게 기존의 급식 대신에 기억력과 집중력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식단으로 구성된 급식을 6개월 동안 제공하였다. 실험 기간이 끝난 후, 갑은 실험 이전과 실험 종료 후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비교하였다.

을은 A 교도소와 B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교정 당국과 교도소 직원 및 재소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을은 A 교도소에는 폭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단을 구성하여 재소자에게 6개월간 제공하였으며, B 교도소에는 폭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단을 구성하여 재소자에게 6개월간 제공하였다. 실험 기간이 종료된 후, 을은 실험 이전과 이후 6개월 동안 2개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들의 폭행건수를 비교하였다.

4) 면접법 [공사 2007-11] [2020-B-9]

-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공사 2007-11]

- 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표본이 되는 소수에게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공사 2007-11]

- 이 방법으로 조사할 때 조사자는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응답자와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옷차림이나 언어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사 2007-11]

가) 장점

-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면접자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고, 반대로 응답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면접자가 응답자의 의도를 다시 물어볼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 면접자는 준비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물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응답자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주택의 형태, 또는 주변동네의 상황 등은 관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나) 단점 [공사 2007-11]

- 다수의 면접자가 조사에 참여할 경우, 면접자의 개인별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 조사대상 지역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면접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때 면접자 간의 차이가 지역의 차이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다) 방법

(1) 면접조사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비표준화/심층(타당도 높으나 신뢰도 낮음), 표준화, 반표준화면접을 할 수 있다.

(2) 전화조사

(가) 장점

- 다른 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 신속성
- 조사자들에 대한 감독 용이

(나) 단점

- 질문의 길이와 내용이 제한받는다.
-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시각적 보조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

(3) 집단조사

-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질문지를 교부해서 기재하도록 한다. 단점으로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할 수 있다.

(4) 공론조사

- 1차 면접조사 →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전문가의 설명·질의·응답·토론 → 2차 면접조사

5) 참여관찰법 [2002-4] [공사 2007-11] [2020-B-9]

- 조사자가 연구 대상 지역에 들어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공사 2007-11]
- 이때 조사자의 역할을 완전한 참여자, 참여자적 관찰자, 관찰자적 참여자, 완전한 관찰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장점

- 면접이나 설문으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종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피조사자의 경계나 비협조로 명확한 응답을 얻을 수 없을 때 등에 유용한 방법이다. [공사 2007-11]
-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어감 차이, 시간상의 변화 등 심층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 연구설계와 연구착수가 용이하며, 연구설계의 과정에서 융통성이 높고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나) 단점 [2002-4] [공사 2007-11]

- 때로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 대체로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어렵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6) 연구법의 비교 [2002-4]

자료의 원천 \ 자료를 얻는 상황	인위적 조작 정도가 높음	인위적 조작 정도가 낮음
언어적 반응이 많음	질문지법	면접법 [2002-4]
비언어적 반응이 많음	실험법 [2002-4]	참여관찰법 [2002-4]

다. 측정: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기타

- 명목척도 < 서열척도 < 등간척도 < 비율척도의 순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도 다양해진다. [2017-A-11]

1) 명목척도 [2011-1차-28] [2012-1차-32] [2014-A-서술5] [2017-A-11]

- 각 범주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다.

가) 예시

- 스마트 폰의 국내 브랜드 여부 [2011-1차-28]
- 귀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지하십니까?: 예 / 아니오 [2012-1차-32]
- 지난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2014-A-서술5]

2) 서열척도 [2011-1차-28] [2013-1차-28] [2017-A-11]

- 명목척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외에 서열성을 가지고 있다.
- 각 범주 간의 간격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가) 예시

- 계층: 우리나라 사람을 아래와 같이 4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의 상층, 중의 하층, 하층 [2012-1차-32]
- 주관적 계층 지위: 한국 사회를 10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1차-28]
- 복지 태도: 귀하는 정부가 공공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2013-1차-28]

3) 등간척도 [2011-1차-28] [2017-A-11]

- 대상을 서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들 간의 간격을 표준화된 척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예시

- 스마트 폰의 디자인 [2011-1차-28]
- 온도
- IQ점수

4) 비율척도 [2011-1차-28]

-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동일하게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만, 비율척도에서는 0이 자의적으로 부여된 값이 아닌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017-A-11]

가) 예시

- 스마트 폰의 수신기능 [2011-1차-28]
- 특정 지역 인구
- 소득
- 범죄율, 도시화율, 실업률, 평균가족크기, 성비, 경제성장률

5) 논리적 오류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항상 각 척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의 측정 수준에 합당한 통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변수의 측정 수준보다 측정 수준이 높은 척도에 적합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면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2017-A-11]

가) 측정수준과 통계방법

	최빈값 [2017-A-11]	중간값	평균값
비율척도	0	0	0
등간척도	0	0	0
서열척도	0	0	
명목척도	0		

6) 평정척도,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 척도

- 평정: 평정척도는 측정대상의 속성을 단일연속선상에 배열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강도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구별해 만든 척도이다. 속성과 수치를 임의로 부여한다.
- Likert: 측정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7개의 항목을 만들어 응답하도록 하고 측정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조사주제와 문항의 질문방향이 다른 경우 역부호화를 할 필요가 있다.
- Guttman: 척도를 구성하는 여러 문항을 일정 기준에 따라 미리 서열화한다.
- Bogardus: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척도.

라. 표집방법: 확률표집, 비확률표집

1) 확률표집

가)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 [2014-A-서술5] [2019-B-7]

- 모집단의 전체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1) 단점

- 모집단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며, 반드시 정확한 방법도 아니다.

나)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 체계표집)

- 모집단의 전체 구성요소가 파악되면 그 명부에서 매 몇 번째 사람을 뽑는 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1) 단점

- 명단이 어떠한 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편중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다)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2024-A-7]

-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집단들로 층화한 다음, 각 층화변수의 비율에 따라 하위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2024-A-7]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 A, B는 연구방법론 강의에서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 설계를 작성한 후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교사 A는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청소년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지역 전체 청소년들의 다문화 여부와 학교급별 구성 분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표본 2,000명을 다문화 여부, 초·중·고를 교차한 6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체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대면 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교사 B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면접 방법을 사용한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전체 표본 2,000명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참고하여 성별과 연령 구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 따라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각 집단에 해당하는 수만큼 자료를 수집한다.

발표를 들은 교수는 교사 A와 B가 사용한 표본추출 방법은 유사한 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두 방법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 이 두 방법은 비슷한 단계를 거쳐 표본을 추출하지만,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 방법은 ㉠ 방법에 비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1) 장점

- 단순무작위표집을 비례층화표집으로 변경할 경우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줄어들면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동질적인 하위집단에서의 표집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오차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2014-A-서술5]

라)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군집표집) [2019-B-7]

- 개인 단위의 명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군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을 여러 집락으로 분류한 후, 추출한 집락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몇몇 선택된 집락에서만!)

- 즉, 층화표집의 하위집단은 동질적이거나, 집락표집의 표집된 집락은 이질적인 것이 좋다.

(1) 장점 [2019-B-7]

- 단순 무작위표집과 비교했을 때, 개인 단위의 명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9-B-7]

[2019-B-7]

- ① A지역의 10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5개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 ② 추출된 교육지원청에서 무작위로 중학교를 10개씩 추출한다.
- ③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20명씩의 교사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마) 가중표집(weighted sampling)

- 확률표집의 논리를 따르면서도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1) 장점

- 모집단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게 되면 그 수가 적어서 유용한 분석을 하기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다.

2) 비확률표집

- 확률표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표집오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드시 확률표집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 연구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1) 장점

-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엄격한 표집계획이 어려운 경우, 편의표집으로 수집된 자료라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단점

-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되지 않아 외적 타당도를 유지하기 힘들어 모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2022-B-9]

[2022-B-9]

연구자 A는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A는 조사 대상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판단표집)

- 모집단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표집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모집단 전체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질문의 적용가능성과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며 사전검사를 위해 쓰이기도 한다.

(1) 장점

- 연구자의 연구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응답자를 고를 수 있다.

다)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 표집 대상이 되는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어 면접하고, 다음에는 그 응답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한다.
- 모집단을 잘 모르는 경우나 대상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일상적 표집절차로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

라) 할당표집(quota sampling) [2024-A-7]

- 모집단이 갖는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한다. 이때 표본선정 시 편의가 없이 가능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4-A-7]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 A, B는 연구방법론 강의에서 '다문화사회'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 설계를 작성한 후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교사 A는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청소년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지역 전체 청소년들의 다문화 여부와 학교급별 구성 분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표본 2,000명을 다문화 여부, 초·중·고를 교차한 6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체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대면 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교사 B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면접 방법을 사용한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전체 표본 2,000명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참고하여 성별과 연령 구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 따라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각 집단에 해당하는 수만큼 자료를 수집한다.

발표를 들은 교수는 교사 A와 B가 사용한 표본추출 방법은 유사한 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두 방법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 이 두 방법은 비슷한 단계를 거쳐 표본을 추출하지만,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 방법은 ㉠ 방법에 비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마. 신뢰도와 타당도

1) 신뢰도

가) 의미 [2005-22]

-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뜻한다.

2) 타당도

가) 의미 [2005-22]

- 연구자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관찰하였는가를 나타낸다.

나) 내적 타당도

- 독립변수가 실제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 [2016-A-13] [2023-B-9]
- 실제 실험연구에서는 미처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내적 타당도를 위협한다.

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 ▶ 아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2018-B-4]
 - 특정 사건의 영향(제3변수의 개입, 역사효과):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중간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판정하기 힘들 수 있다. → 사전-사후검사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 피실험자의 변화에 따른 영향(성숙):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실험자가 변화할 수 있다. → 대조군 설정, 짧은 기간 연구
 - 대상자를 차별적으로 선정(대상자 선택 편중, 선정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되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무작위 배정
 - 사전검사의 영향(시험효과, 검사효과): 사전검사의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사전-사후검사 시차 [2018-B-4]
 - 측정도구나 관찰자에 따른 신뢰도 문제(측정도구의 효과, 도구효과): 측정도구나 관찰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 → 자료수집자 훈련, 신뢰도 높은 도구 이용
 - 통계학적 회귀효과(통계적 회귀): 첫 번째 검사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낸 사람이 두 번째 검사에서는 중간에 가까운 쪽으로 점수를 내는 경향이 있다. → 대조군 설정
 - 피실험자의 탈락(대상자 탈락): 대상자들이 연구대상에서 빠져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라) 외적 타당도 [2024-B-5]

-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또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즉 연구의 결과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 외적 타당도에서는 특히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2013-1차-28]

[2024-B-5]

예비교사 2 : 학생들의 모둠활동 중 잘못된 부분을 지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모둠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모둠 구성원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잘못 수행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도교사 : 학생들이 잘못 수행한 부분은 교수·학습 단계 중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예비교사 2 : (⊙).

마)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 반작용효과 : 측정 그 자체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 가) 호손(Hawthorne) 효과 :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한 것을 인지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b) 존 헨리(John Henry) 효과 :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 실험대상자 선정에서 오는 편향과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 :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하지만, 실험에서는 대부분 지망자 가운데서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생태학적 상황 :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외적 타당도가 높다.

(1) 예시

▶ 아래 경우들은 표집방법에 문제가 있어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생기므로 따라서 일반화가 어렵다.

[2008-19]
 가설 : 흡연자와 비 흡연자 사이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표본 추출 : 30세 이상의 남성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자와 흡연하지 않는 자 각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2010-1차-29]
 연구주제 :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성이 청소년에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이 조사대상 지역에서 50개 구·군을 무작위로 선정, 구·군별로 1개 학교를 대상으로 2학년을 30명씩 조사하
 되, 방문 조사할 학교와 학급은 조사요원이 임의로 정함.

바) 측정도구의 오차 : 체계적 오차, 무작위 오차

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1) 객관적 태도 [2007-23]

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2007-23]

- 연구자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 주관적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 수행

[2007-23]
 지능검사는 원래 정신박약아를 구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프랑스의 비네와 시몽이 개발한 이래 널리 활용되어 왔다. 스탠퍼드 대학의 터먼 교수는 이 검사 방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능검사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런데 터먼은 자신이 만든 지능검사에서 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자, 여성에게 이롭다는 느낌이 드는 항목을 잘못 작성되었다며 모두 삭제해 버렸다. 또한 터먼은 멕시코인과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그들을 모두 가벼운 정신박약인으로 여겼으며, 이는 유전적 특질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적 특질의 원인을 다산(多産)에서 찾았으며, 이에 따라 흑인과 멕시코인들을 격리하여 교육해야 하며, 그들의 출산도 억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2) 연구윤리 [2003-19]

- 연구대상자 관련: 자료 수집 시 조사대상자에게 자발적 동의를 받고, 연구목적을 알려야 함. 만약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이나 과정을 미리 알리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2003-19] [2025-B-7]
-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2-B-9] [2025-B-7]
-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야 함. [2025-B-7]
-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2025-B-7]
- 연구대상자 관련: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해서는 안 됨
- 연구과정 관련: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됨.
- 연구결과 공표 관련: 연구결과 공표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은폐, 왜곡, 과장해서는 안 됨

[2003-19]

(가) 정OO 박사는 폭력적인 성향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청소년들의 폭력 성향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실험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 박사는 연구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기 위한 구인 광고를 냈다. 특히,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상황하에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구인 광고에서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 온라인 게임 개발 연구에 참여할 남녀 청소년을 구합니다. 사례비는 시간당 XX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에게 연구의 구체적 계획을 알리지 않고, 폭력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에 장기간 참여하게 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폭력적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향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나) 고△△ 박사는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과 이해도”에 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고 박사는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연구 자체에 대한 반감을 낮추고, 응답자의 동의를 수월하게 얻기 위하여, 학교에 보내는 연구 협조문에 연구 목적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 여건 조사”라는 제목으로 조정하여 발송하였다. 고 박사는 연구에 동의한 학교에서 1년여 동안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과 이해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025-B-7]

갑과 을은 음식물 섭취와 두뇌 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영양 섭취가 두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정 영양소가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음식의 섭취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갑과 을은 음식물의 섭취가 ㉠인간의 두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갑은 K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해당 교육청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갑은 신학기가 시작되자 2학년 학생들에게 기존의 급식 대신에 기억력과 집중력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식단으로 구성된 급식을 6개월 동안 제공하였다. 실험 기간이 끝난 후, 갑은 실험 이전과 실험 종료 후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비교하였다.

을은 A 교도소와 B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교정 당국과 교도소 직원 및 재소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을은 A 교도소에는 폭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단을 구성하여 재소자에게 6개월간 제공하였으며, B 교도소에는 폭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단을 구성하여 재소자에게 6개월간 제공하였다. 실험 기간이 종료된 후, 을은 실험 이전과 이후 6개월 동안 2개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들의 폭행건수를 비교하였다.

3) 해석상의 오류

가) 생태학적 오류 [2013-2차-1]

- 집합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2013-2차-1]

뒤르케임(Durkheim)은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바바리아 지역과 개신교도의 비율이 높은 프러시아 지역에서 신자의 비율과 평균 자살 건수의 관계를 조사하여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즉, 바바리아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구역일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반면, 프러시아 지역에서는 개신교도의 비율이 높은 구역일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본 어떤 연구자는 개인의 종교 차이가 자살할 가능성 차이의 원인이라고 해석하였다.

나) 개인주의적 오류

-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 평등주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진술에 다수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해서 그 사회가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 그 사회의 개별 구성원의 의식성향과는 달리 한 사회는 매우 불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